

2011 청소년상담연구 · 166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책임연구자: 양미진

공동연구자: 고흥월

이동훈

김영화

청소년상담연구 166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인 쇄 : 2011년 12월

발 행 : 2011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구 본 용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73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아름기획

비매품

ISBN 978-89-8234-493-0 94330

ISBN 978-89-8234-001-7 (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 책임연구자: 양미진 ; 공동연구
자: 고희월, 이동훈, 김영화.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1
p. ; cm. -- (청소년상담연구 ; 166)

ISBN 978-89-8234-493-0 94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다문화 가족[多文化家族]

334.3-KDC5
362.7-DDC21

CIP2011005316

간행사

단일 민족 중심의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은 국가 간 인적 교류 확대로 인한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에 다문화 사회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은 여전히 많은 불평등과 차별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업, 대인관계, 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돕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는 아직 그 준비가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의 다문화 상담서비스는 이주 여성의 국내 적응 조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거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아 청소년기에 접어들어 의해 다양한 갈등과 혼란에 직면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직면한 어려움은 무엇인가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상담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문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전문가를 심층 면접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서비스를 분석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탐색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심층 면접을 진행하여 현재 다문화 청소년이 가진 고민과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들이 바라는 도움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지원 모델을 기본으로 한 다문화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매뉴얼 초안은 청소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 교육과 다문화상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최종 매뉴얼을 완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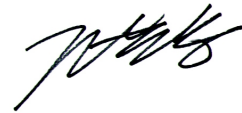
본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해준 무지개청소년센터, 재한몽골학교,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경기청소년상담지원센터,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안산글로벌아동센터, 아시아공동체학교, 다문화가족 상담지원센터, 청주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YWCA와 참여 청소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애를 쓴 본원의 양미진 박사, 김영화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히 연구를 수행하신 충남대

학교 고흥월 교수, 부산대학교 이동훈 교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뉴얼 개발 과정에 성실히 조력한 연구보조원 류다정 선생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다문화 상담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본 연구가 아무쪼록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연구와 실재를 발전시키는 데 작은 초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12월

원 장 구 본 용



초 록

최근 급증하고 있는 다문화인구는 다문화 사회로서의 새로운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 또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내 적응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자민족중심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다양한 심리적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의 준비도는 부족하므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위한 기초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이주노동자가정 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 개입을 위한 청소년 상담자용 상담매뉴얼을 개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현장전문가와 청소년 대상의 요구조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호소문제, 개입 전략 등 상담매뉴얼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내용을 수정·보완 한다.

이러한 연구과제를 위하여 기획단계, 구성단계, 실행 및 평가단계를 거친 매뉴얼 개발을 실시하였다. 첫째, 기획단계에서는 선행이론 및 연구를 통해 다문화상담의 개념을 탐색하고, 다문화 청소년의 국내 현황 및 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다문화 인구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대한 이론과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환경적 측면, 발달적 측면, 적응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한편, 다문화 청소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자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기술하여 매뉴얼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 9인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는 합의적질적분석 과정을 통해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개입전략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14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 역시 합의적질적분석을 통해 분석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경험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의 적응을 조력하기 위한 방안을 정리하였다.

둘째, 구성단계에서는 기획단계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안점으로 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우선 통합지원모델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 모형을 설정하였다. 상담 모형의 단계는 준비시키기-초기면접-연계-심리상담-추수지도의 5단계로, 이러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역량과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중심에 놓았다. 이러한 상담과정에서 다양한 예시질문과 세부적인 조언 등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심리상담 개입 부분은 상담자들이 활용가능한 대표적인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실행 및 평가단계에서는 청소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참가자 관점의 평가와 다문화 청소년상담 전문가 2인에 의한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 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였다. 매뉴얼 시범교육에는 청소년상담자 33명이 참여하였으며 참가자 관점 평가 및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대체로 도움 받은 정도에 대한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각 구성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이 수렴되었다. 이러한 청소년 상담자들의 세부 의견과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수집된 세부의견을 중심으로 매뉴얼 수정보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자의 실제 경험과 이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에서의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상담매뉴얼을 향후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기초적인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매뉴얼을 수정 및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 론 | 1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2. 연구의 과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 7

1. 다문화 상담의 개념	7
2. 다문화 청소년 현황	8
3. 다문화 인구의 이주 및 정착과정	16
4.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18
5. 다문화 상담에서의 상담자 역량	31
6. 결과 요약 및 시사점	45

III.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 48

1.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48
2. 다문화 청소년 요구분석	60
3. 논의 및 시사점	66

IV.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 71

1. 상담매뉴얼의 개발 절차 모형	71
2. 상담매뉴얼의 개발 과정	72



V. 요약 및 논의 | 97

1. 요약	97
2. 시사점	98
3.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101

참고문헌	103
------------	-----

부 록	111
-----------	-----



Ⅰ 표

표 1.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분포(김승권 외, 2010)	10
표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현황	11
표 3.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급별 현황	12
표 4. 다문화가족 자녀의 탈학교 비율	12
표 5.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계획(과학기술부, 2010)	15
표 6. 다문화 청소년 사업 현황(여성가족부, 2011)	16
표 7. 소수 집단 정체감 발달 모델 (Atkinson, Morten, & Sue, 1997)	17
표 8. Berry의 문화적응 모델 (정진경, 양계민, 2004)	18
표 9. Bennett(1993)의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 발달 단계	42
표 10. Heard(1999)의 교사들의 다문화 수용과정	43
표 11. 현장전문가 인적사항	49
표 12.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영역	50
표 13. 다문화상담 관련 경력	52
표 14. 현장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양상	52
표 15.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어려움	56
표 16. 다문화 상담자 역량	57
표 17. 면접조사 참여 다문화 청소년 인적사항	61
표 18. 다문화 청소년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62
표 19.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	63
표 20.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단계별 특징	64



표 21. 다문화 청소년 지원 서비스	65
표 22. 상담매뉴얼 구성안	76
표 23. 초기면접 내용 영역	77
표 24. 시범교육의 구성	81
표 25. 참가자 관점 평가 도구의 구성	82
표 26. 상담매뉴얼 내용 및 구성 평가 결과	83
표 27. 구성영역별 평가	83
표 28.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84
표 29. 상담매뉴얼에 대한 종합 의견	85
표 30. 구성영역별 의견	86
표 31.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에 대한 전문가 2인 평가 결과	87
표 32. 전문가평가 종합의견	88
표 33.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제시된 보완점	89
표 34. 상담매뉴얼 수정 계획	93
표 35. 상담매뉴얼 운영에 대한 보완 계획	96



I 그림

그림 1. 외국계주민 변동추이(단위: 천 명)	9
그림 2. 외국계주민 유형별 현황	9
그림 3.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11
그림 4. 문헌연구에 기초한 다문화 상담자 역량 지표	33
그림 5.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절차	71
그림 6. 다문화 청소년 상담단계	75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민족, 단일민족임을 자랑스러워하던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다문화가정'이란 용어는 이제 가정의 한 형태로 일반화 되었다.

국가 간 인적 교류의 확대에 의한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는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우리 사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단기간에 다문화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국제결혼 가정의 급격한 증가와 외국인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한국 내 유입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이주민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여전히 이방인으로 취급받으며 다양한 불평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서현, 이승은, 2007; 전경숙, 2008).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으로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이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다문화적 배경은 학교 내 적응을 어렵게 하며 다양한 위기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장덕희, 신호선, 2010;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특히 전국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위기결과 경험비율에 있어 부모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8.4%인 것에 비해,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모 출신국에 따라 11.1%(한 분만 외국인)~48.5%(두 분 모두 중국교포)로 위기결과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학교폭력, 따돌림, 인터넷 중독 등의 위기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재학여부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 현재 30,040명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생이 78.6%, 중학생이 16.0%, 고등학생의 경우 5.4%로 초등학생의 비율이 높은 상태이며, 매년 학령기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학령기 자녀는 현재까

지는 초등학교생의 비율이 높으나 이들이 곧 청소년기에 접어들 것이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였으나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대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국가차원에서도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각 정부부처에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교육기술과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지자체 단체에서 일정 예산을 지원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부부, 아동에게 언어교실, 한국 문화 체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적응을 돕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접근 방향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한국 내 적응에 초점화되어 있다. 특히 이주여성들에 대한 국내적응을 위한 지원은 법무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보건복지부, 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최근에는 다문화 인구 중 아동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전체 지원 중에서 아동에 대한 지원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다문화 아동에 대한 접근도 비슷하게 이들의 한국사회 내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정하성, 우룡, 2007; 조영달, 박윤경, 2010). 그러나 상당수의 아동들이 성장하여 청소년 단계로 진입하였고, 곧 더 많은 아동들이 청소년으로 전환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독특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현 단계에서의 사회적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라는 발달기의 특성과 다문화라는 배경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심층적 지원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국가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개입은 미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비단 현장 지도자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실제 다문화 청소년에 관한 많은 정책 연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 상담서비스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성상환, 김광수, 임은미, 2009;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조영달, 박윤경, 2010). 즉 이들에게 필요한 물리적 지원 연계뿐만 아니라 상담을 통한 정서적, 발달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접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자, 다문화관련 지원센터의 지도자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준비도는 미약한 실정이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의 청소년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정보 및 기술, 자료가 부족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에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인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지원의 폭, 실무자의 준비도 등에 있어 여전히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다문화 상담을 추진한다면 과연 다문화 상담을 주도하는 상담자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준비 되었는지는 또한 의문스러운 부분이다. 현재 각 대학 상담자 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 및 주요 학회의 다문화 주제 연수를 고려할 때, 다문화 상담에 대한 상담자 교육은 다문화 사회적 현상보다 거의 10년 늦게 출발하였으며 다문화 상담교육의 양과 질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다문화 상담자의 준비도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논할 수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실제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가, 다문화 상담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다루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다문화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역량이 무엇인가 등에 대한 해답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회적 요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자의 전문성 준비도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준비도의 불균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다문화 상담자의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다문화 상담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다. 상담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의 형태와 어려움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과 맥락에 맞는 개입 전략 수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자들의 준비도를 높이고, 외국과는 다른 우리나라 상황에 적절한 다문화 상담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의 발달적인 특성과 함께 그들의 한국내 거주 지역의 적법성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이주배경(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자녀 등)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이는 곧 다양한 상담문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 기술,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 자원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적절한 개입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하였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 환경적 특성과 호소문제, 효과적인 개입전략, 이에 필요한 다문화 상담자의 역할 및 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호소문제와 필요한 도움 등을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 개발된 다문화 청소년 상담 매뉴얼은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 학교 및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상담서비스로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과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현재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에 어떠한 지원과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는 많으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경험에 대한 자료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어려움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제공하고, 보다 구체적인 상담 개입을 제공하려면 적응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구체적인 경험을 파악하고 실제 적응과 관련된 양상과 적응을 돕기 위한 개입전략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대처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세부적인 자료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상담에서 필요한 개입이 무엇인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방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 및 현장전문가와 청소년 대상의 요구조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호소문제, 개입 전략 등 상담매뉴얼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상담매뉴얼 개발 절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매뉴얼을 수정·보완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기존 연구보고서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를 참고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의 개념은 단순히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 한 명이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족을 뜻한다(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가족의 개념은 이 중 협의의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흔히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0).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국제결혼가정 외에도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새터민 등)을 포함시키는 추세이며, 다양한 이주 및 가족형성 경로로 인하여 범주의 구분이 단순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양한 분화 및 중첩이 이루어지고 있다(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예를 들어 최근 들어서는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이혼을 하고 외국출신여성과 재혼을 함으로써 외국출신의 새어머니나 새아버지와 함께 사는 경우, 외국출신 여성이 본국에 자녀를 두고 한국남성과 결혼을 한 후 자녀를 입양하는 형식으로 한국으로 데려온 경우 등 다양한 다문화가족이 형성되고 있다(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광의적 접근을 취하며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 국가 간 이주로 한국 사회에 편입하여 문화적 전환을 경험하는 이주청소년을 다문화 청소년으로 정의하였다. 조작적으로는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청소년을 다문화 청소년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특히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나 사회적 지원 필요성 차원에

서 비교적 취약 계층으로 인식되는 다문화 청소년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나. 다문화 청소년 상담

청소년상담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발달 특성과 관련된 적응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이자, 청소년들이 경험하거나 야기시키는 특수한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상담으로 폭넓게 정의되어 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앞서 정의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여러 적응 문제나 호소 문제에 대해 조력하는 역할이자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 인식되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조력의 과정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다문화 상담의 개념

다문화 상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해 살펴보면,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크게 기술적인(descriptive) 용어와 규범적인(normative) 용어로 구분될 수 있다(Heywood, 2007). 기술적인 용어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양성을 사전적으로 기술하는 반면 규범적인 용어로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른 공동체에 대한 존중과 인정, 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지지 등을 나타낸다. 이러한 용어의 두 측면에 따라 다문화 상담(multicultural counseling) 역시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담을 나타내는 기술적인 용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전통적인 상담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나타내는 규범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즉, '다양한 내담자를 향한 상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나타 내기도 하지만 전통적인 상담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이론을 제시하는 제 4세 력(the Fourth Force)으로 여겨지기도 한다(Essandoh, 1996).

'다양한' 내담자라는 표현이 어떠한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Pedersen(1994)은 여러 변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정의한 바 있다. Pedersen은 민족, 국적, 종교, 언어와 같은 민족적(ethnographic) 변인, 연령, 성별, 거주지와 같은 인구학적(demographic) 변인,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계층을 포함하는 지위(status) 변인, 가족, 기관과 같은 공식적인 소속과 신념이나 생활방식과 같은 비공식적인 소속을 모두 포함한 소속(affiliations) 변인을 다문화 변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즉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 개인의 고유한 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앞서 제시된 다양한 다문화적 변인을 함께 고려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정체성을 개인, 집단, 보편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하고, 조력과정에서 개인적, 문화특수적인 전략과 역할을 사용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Sue, & Torino, 2005).

그러나 다문화 상담에서 여러 집단 간, 개인 간 차이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문화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정체성을 개인, 집단, 보편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을 주요하게 생각하는데(Sue, & Sue, 2008) 이는 한 개인이 독자적인 개

체로서 고유성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정체감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모두 아울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문화 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있어서는 보편적인 치료적 조건이 공유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Patterson(2004)은 내담자의 우연적인(accidental) 부분과 본질적인(essential) 부분을 구분하고, 문화, 민족, 인종에 의한 차이는 출생지에 따른 우연적인 차이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점은 본질적임을 강조하며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보편적인 시스템을 ‘내담자에 대한 존중’, ‘진실성’, ‘공감적 이해’, ‘공감, 존중, 진실성에 대한 의사소통’, ‘구조화’로 표현하였다.

즉, 다문화 상담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강조된 보편적 치료적 조건을 공유하지만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에 대한 인식과 존중이 강조되는 접근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특성, 청소년기라는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 한국 사회와 이러한 특성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난 적응 문제 등 개인적,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접근을 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우선 국내의 다문화 청소년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다문화 청소년 현황

가. 다문화가정 현황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계주민 수는 총 1,113,283명으로, 이는 주민등록인구의 2.3%에 해당된다. 여기서 외국계주민이라 함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국적 취득자 그리고 외국계주민 자녀로 분류된다.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외국인등록을 하는 90일 이상 체류자를 말하며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외국인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1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증가하고 있는 외국계주민 수의 변동추이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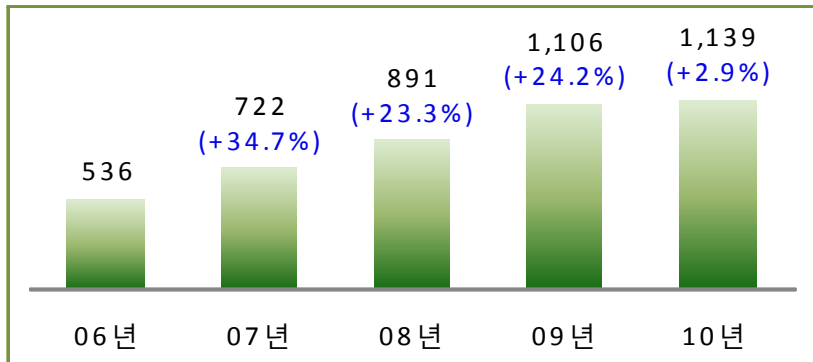


그림 1. 외국계주민 변동추이(단위: 천 명) (행정안전부, 2010)

외국계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주민은 920,887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80.8%이고, 이중 외국인근로자는 558,538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49.0%이며, 결혼이민자 125,087명(11.0%), 유학생 80,646명(7.1%), 재외동포 50,251명(4.4%)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혼인귀화자 등 한국국적취득자는 96,461명(8.5%)이고, 외국계주민 자녀는 121,935명(10.7%)으로 집계되었다. 외국계주민의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국적자가 636,507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55.9%를 차지하였으며, 동남아 247,885명(21.8%), 미국 64,177명(5.6%), 남부아시아 43,204명(3.8%), 일본 25,295명(2.2%), 대만 24,389명(2.1%)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9.7%, 서울 29.5%, 인천 5.6% 등 수도권에 64.8%(737,617명)가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외국계주민의 유형별 현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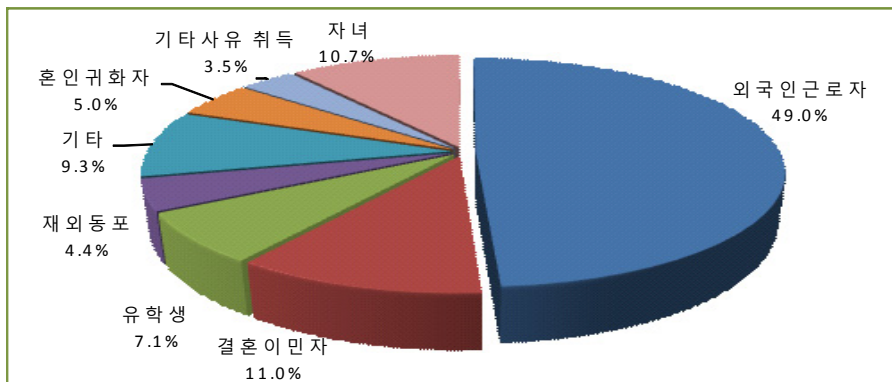


그림 2. 외국계주민 유형별 현황 (행정안전부, 2010)

나.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2010)에 따르면 외국계주민의 자녀는 121,935명으로 전체 외국계주민의 10.7%이며, 미취학아동(만 6세 이하)은 75,776명, 초등학생(만 7세 이상~12세 이하)은 30,587명으로 초등학생 이하가 8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중국인을 포함한 중국국적자가 50.2%를 차지하였으며, 동남아 36.5%, 일본 4.7%, 중앙아 1.9%, 몽골 1.5%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4.6%, 서울 15.6%, 경남 7.6%, 인천 6.4%, 경북 6.3% 등 수도권에 46.6% (56,772명)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은 6세 미만이 66.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초등학교 취학연령인 6~11세는 23.9%, 중학교 취학연령인 12~14세는 4.6%, 고등학교 취학연령인 15~17세 1.4%로 나타났다. 즉 아직은 미취학연령의 아동이 가장 많으며 중고등학교 연령의 청소년은 많지 않은 상황이다.

표 1. 결혼이민자 자녀 연령분포(김승권 외, 2010)

구분	전체 결혼이민자 자녀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남성 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비율(%)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전체	101,556	100.0	94,591	100.0	6,965	100.0
6세 미만	67,498	66.5	64,015	67.7	3,483	50.0
6-11세	24,264	23.9	22,601	23.9	1,663	23.9
12-14세	4,653	4.6	4,308	4.5	345	4.9
15-17세	1,467	1.4	1,244	1.3	223	3.2
18세 이상	3,674	3.6	2,423	2.6	1,251	18.0

그러나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2009)는 앞으로 지속적인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모든 학령기에서의 결혼이민자 자녀수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초등학령기 아동(7~12세)은 2009년 201,000명에서 2020년 866,000명으로 4배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중학교학령기 아동(13~15세)은 32,000명에서 231,000명으로 7배 수준, 고등학교학령기 아동(16~18세)은 19,000명에서 129,000명으로 6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림 3은 2009년과 2020년의 결혼이민자 자

녀의 학령별 인구구성 비교를 보여준다.

한편, 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0,040명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78.6%, 중학생 16.0%, 고등학생 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전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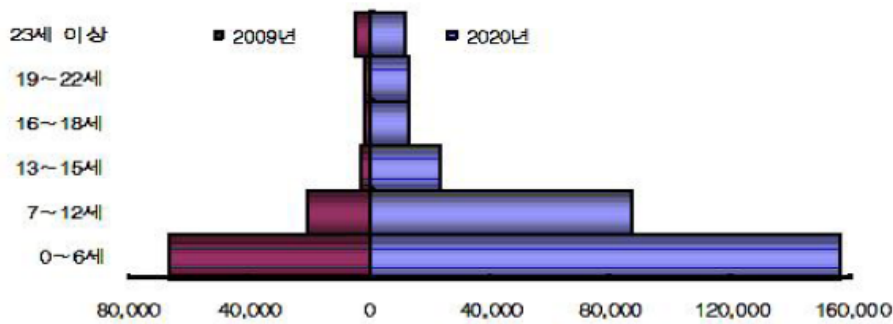


그림 3. 결혼이민자 자녀의 학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 2009-2020년 (설동훈 외, 2009)

표 2.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6,795		924		279		7,998	
2007	11,444	68.4	1,588	71.9	413	48.0	13,445	68.1
2008	15,804	38.1	2,213	38.9	761	84.0	18,778	39.6
2009	20,632	30.5	2,987	35.0	1,126	48.0	24,745	31.8
2010	23,602	14.4	4,814	61.2	1,624	44.2	30,040	21.4

(교육과학기술부, 2010)

또한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표 3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1,748명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62.9%, 중학생 25.5%, 고등학생 11.6%이며,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고, 전체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나 신분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취학연령대 아동청소년에 대한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그들까지 포함한 학령기 자녀의 전체 수는 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급별 현황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인원	증감(%)
2006	1,115		215		61		1,391	
2007	755	△32.3	391	81.9	63	3.3	1,209	△13.0
2008	981	29.9	314	△19.7	107	69.8	1,402	15.9
2009	834	△15.0	307	△2.2	129	20.6	1,270	△9.4
2010	1,099	31.8	446	45.3	203	57.4	1,748	37.6

(교육과학기술부, 2010)

행정안전부에서 집계된 초중등 학교급의 국제결혼가정 자녀 42,676명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행정시스템을 통해 재학여부를 대조해 본 결과, 다음 표 4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35,316명(평균 83%)이 재학하고 있으며, 나머지 7,360(27%)은 학교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희목 의원실, 2008). 또한 원희목 의원실(2008)에서는 초등학교 연령은 14%, 중학교 연령은 16%, 고등학교 연령은 30% 정도가 학교밖에 있으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탈학교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를 통해 발표된 다문화가족 자녀의 통계가 서로 다르고,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축소되는 등의 한계가 있어 정확한 탈학교 비율의 파악은 어려운 실정이다(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2011).

표 4. 다문화가족 자녀의 탈학교 비율

구분	재학 자녀수	전체 자녀수	재학률	탈학교비율
초	23,944	27,990	86%	14%
중	6,739	8,055	84%	16%
고	4,633	6,631	70%	30%
총 계	35,316	42,676	83%	27%

(원희목 의원실, 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의미

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현황

1)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법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과 제도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과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며,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활과 교육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① 유엔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한 유엔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의 권리협약’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은 ‘모든 아동은 부모의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받아야 하며’(제 2조),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제 10조)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고,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해야 함’(제 28조)을 명시하고 있다.

②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제 10조)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만 제한되고 있어 외국인노동자가정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③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제 12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그 적용대상을 '결혼이민자의 자녀'로만 제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④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그 밖에 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은 입학 또는 전학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 19조, 제 75조). 그러나 고등학교 입학은 외국 또는 북한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자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와 같이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학생에게만 제한되고 있다(제 82조).

2)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

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조기적응 및 교육적 성취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과 다문화가정 유아, 중도입국 자녀 등 교육의 취약지대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2010년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추진과제는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이다.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10)

추진과제	추진내용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1:1 멘토링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거점학교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 방학 집중 캠프 국제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국립 교·사대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지원 사립 교원양성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유도 현직 교사 연수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 지원 학부모를 이중언어 강사요원으로 양성·활용 학부모 대상 '문해교육 강사요원 연수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다문화가정 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아 교사 연수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유아교육 현장 활용 확대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지원	취학전 예비과정 지원 학교 내 특별학급 운영 지원 공립 대안학교 설립 지원 역량 있는 학부모의 교육 지원·활용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교육 기반 및 지원체제 강화	일반 학생의 다문화 이해교육 지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운영 지원 시·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정책 추진역량 강화 지역 단위 다문화교육 네트워크 운영 강화

②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기관으로 전국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그 중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역량 개발과 같은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과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다문화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결혼가정청소년,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 등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2006년에는 재단법인 무지개청소년센

터를 설립하여, 청소년 다문화 역량강화 사업 등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추진사업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다문화 청소년 사업 현황(여성가족부, 2011)

추진사업	사업내용
청소년 다문화 역량강화사업	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 리더십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청소년 지역센터 운영 전문가 양성 교육
연구개발사업	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 DB 구축 및 활용 북한이탈·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매뉴얼 발간 세계 다문화 청소년 워크숍 종합정보서비스 사업 북한이탈 청소년 이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다문화 인구의 이주 및 정착과정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인구의 유입과 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인구 비율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해 이들의 이주 및 정착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문화에 진입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환경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그 환경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하고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적응의 과정을 겪게 된다. Bochner(1981)는 문화적 적응곡선을 통해 일반 사람들이 이국 문화를 접할 때 겪게 되는 문화 적응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문화적 적응곡선에 따르면 우선 새로운 문화를 접함에 따라 짧은 밀월기(The Honeymoon Phase)가 나타난다. 밀월기에는 새로운 장소 및 환경에 대한 흥분과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 두 번째 단계는 혼란기로서 문화적 충격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 나타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흥분을 지나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치관과 생활양식 간의 차이를 지각하게 되며, 기존의 방식과 새로운 방식 간에 충돌이 나타난다. 이러한 충돌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심리적 고통이 따른다. 세 번째 단계는 문화 적응의 단계로서 어느 정도 적응을 이루어나가며 새로운 문화와 가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네 번째 단계는 안정기로서 내면화된 새로운 문화와 함께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롭게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개인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

이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고 기존의 문화를 고수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안정을 찾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 문화와 새로운 문화 간의 통합에 의해 자신만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도 한다. 즉 문화적응 과정은 급격하고 압도적인 심리적 경험을 산출하기 때문에 각 개인의 대응방식에 따라 다양한 적응 양태가 나타난다.

심리적 적응의 어려움은 정체감 발달의 과정과 관련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기가 자신의 속한 문화권 안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형성해나가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타문화 안에서 정체감 발달의 과업을 이루어야하는 다문화 청소년은 더욱 큰 어려움에 노출될 수 있다. Atkinson, Morten, & Sue(1997)는 자신에 대한 태도, 같은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에 대해 구분함으로써 다섯 단계로 소수 집단의 정체감 발달 과정을 설명하였다(표 7). 이들에 의하면 소수 집단은 순응, 불일치, 저항과 흡수, 자기반성, 통합적인 명료화와 인식의 단계로 정체감을 발달시켜 나간다. 마지막 단계인 통합적인 명료화와 인식의 단계에서는 자신, 같은 소수 민족, 다른 소수 민족, 주류 집단에 대해 전반적인 긍정적 태

표 7. 소수 집단 정체감 발달 모델 (Atkinson, Morten, & Sue, 1997)

단계	자신에 대한 태도	같은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태도	주류 집단에 대한 태도
1단계: 순응	자기 비하	집단 비하	차별적	높이 평가
2단계: 불일치	자기 비하	집단 내 갈등: 집단비하와 높이 평가	주류문화의 소수문화위계에 대한 관심과 공유된 경험의 감정 사이의 갈등	집단 비하와 높이 평가 사이의 갈등
3단계: 저항과 흡수	자기를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다른 소수집단경험에 대한 공감과 자문화중심주의 감정의 갈등	집단비하
4단계: 자기반성	자기를 높이 평가하는 근거에 관한 관심	불평등한 평가의 본질에 대해 관심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인종중심적인 관심	집단비하의 근거에 대한 관심
5단계: 통합적인 명료화와 인식	자기를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집단을 높이 평가	선택적인 높이 평가

도와 선택적인 평가의 균형이 나타난다.

Berry(1980, 1997) 역시 문화적응 모델을 통해 문화적응의 상태를 두 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각 범주의 적응과정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Berry의 문화적응모델은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하였으며 적응에서 나타난 정체감 상태를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즉 다른 문화에서의 적응 과정을 문화적 정체감을 유지하는 정도와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부로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첫 번째 차원은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 할 것인가’이며, 두 번째 차원은 ‘주류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이다.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범주를 나누면 다음 표 8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8. Berry의 문화적응 모델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 정체감과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아니다
차원 2 주류 사회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차원 1 그렇다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아니다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이상 다문화 인구가 이주 및 정착과정에서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경험과 적응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타문화와의 접촉부터 그 사회에서의 적응은 어떤 개인에게나 중요한 적응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혼란과 갈등을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경험은 아동, 청소년, 성인을 막론하여 모두에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배경이나 연령별 발달과업에 따라 경험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은 국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성장한 일반청소년과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일반청소년들과 구분되는 차별적 특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청소년과 공통적인 특

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하성, 우룡(2007)의 다문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학업문제가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청소년들과 다른 문화적응, 언어발달로 인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공부·학업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다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을 분석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응, 학교적응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을 ‘문제 집단’으로 구별 짓는 접근은 지양하고자 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들은 독특한 이주경험이나 문화배경의 차이로 인해 일반청소년과 다른 사회적응, 학교적응 과정을 거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상에 나타난 특성을 다문화 청소년의 고유한 내적 특성으로 ‘낙인’되는 접근에 대해 경계하고자 한다. 이러한 낙인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차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적 역량과 잠재력에 대한 존중을 전제한 상태에서 다문화 청소년이 성장 과정 중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문화 인구의 이주 과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어려움을 제시하는 이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적응이라는 것은 한 가지 측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과 단계로 이해해야만 마땅하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비취 국내 거주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환경적 측면, 발달적 측면, 적응적 측면으로 나뉠 수 있다.

가. 다문화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

1) 이주 배경

교육사회학자들은 소수집단(minority) 간 이주의 성격에 따라 한 사회와 관계 맺는 양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한다(김정원, 2006). 예를 들어, 미국 내 다양한 소수 집단 중에서도 미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집단과 비자발적으로 이주한 집단은 미국 사회와 관계를 맺는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청소년 역시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의 삶을 시작하므로 이들의 다양한 이

주 배경을 이해하는 일은 다문화 청소년 이해에 핵심적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 배경을 크게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이주노동자가정의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은 배우자 중 한 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청소년을 말한다.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의 경우 본인은 이주경험이 없더라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주경험이 있을 수 있다. 최근 가장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 아버지가 한국인, 어머니가 외국인인 국제결혼가정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경우 본인들은 이주경험 없이 한국사회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경우가 많다.

이주노동자가정의 경우 본국에서 태어난 뒤 부모와 함께 이주한 청소년, 이주노동자가 가정을 이루어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 등 양상이 다양하다. 특히 이주노동자가정의 이주 배경이 불법적인 경로였는지, 합법적인 경로였는지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는 이주경험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이주를 경험하고, 불법 체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들은 출생 신고도 할 수 없으며 의료, 교육 등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이주노동자 자녀들은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 또한 이러한 이주과정에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몽골 이주노동자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민가영(2009)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낸 기간은 최소 4년에서 최대 12년에 이르렀다.

위에서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의 청소년으로 각각 나누어 각 청소년의 이주경험을 살펴보았으나 각 청소년의 가정사나 개인사에 따라 이러한 이주경험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한국에 재혼하기 위해 이주해 온 외국 여성들이 결혼 후 현지의 자녀를 한국에 데려오으로써 발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이지만 본국에서 성장한 뒤 한국사회로 진입한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와 유사하게 새로운 언어를 익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하며, 가정 해체, 학업중단 등 취약한 환경에서 이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2011). 이렇듯 다문화 청소년은 개인에 따라 다양한 이주경험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이주 경험 자체를 이해하는 일이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선행되어야할 영역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보면, 농촌 사회 구성원이거나 도시 하류층 계급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이루어진 2009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이 살고 있는 집 소유형태는 전세·월세 42.2%, 본인·배우자 소유 33.0%, 배우자 부모 소유 19.5%로 다문화가족의 자가소유율이 낮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빈곤층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빈곤 경험 조사에 있어서도 전체 30%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들이 ‘사회보험료 미납 경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해 전기, 수도 등이 끊긴 경험’, ‘생활비가 모자라서 돈을 빌린 경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치료 중도 포기 경험’ 등의 빈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지역 결혼이민자의 빈곤 경험률이 읍면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다문화 가정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시사하였다.

이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더욱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이주노동자들은 한국 입국 시 거액의 빚을 지고 중간브로커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가 많아 이 빚을 갚기 위해 장기간 체류하며 3D 업종에서 하루 평균 11.60시간의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05). 또한 미등록 체류자 신분인 경우 교육 및 의료 등에 있어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 자녀들이 돌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방치되며, 학교를 가지 않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이렇듯 다문화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들의 어려움에 사회경제적 측면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과 유사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교육 소외 경험에 대해 이주노동자 자녀와 한국 빈곤층 청소년을 비교한 민가영(2009)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교육적 소외에 놓여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며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나 소외에 대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이해를 제안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이나 적응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다문화적 요소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이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고려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

3) 가족 특성

가족은 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역시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문화 가정에 관한 연구들은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매년 두 배 이상의 양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김근영, 박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 여성을 초점으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여성의 결혼만족도, 양육관련 스트레스, 갈등유형, 적응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고 시사되는 모의 양육관련 특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과 관련하여 연구가 가장 많이 된 변인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스트레스이다.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양적 연구결과에는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중간 이상이라는 보고(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자형, 2009)와 임상적으로 심각하지는 않지만 고위험에 속하는 여성이 다수 존재한다는 결과(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2008) 등이 있다.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결혼이주 여성의 국적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지현 외(2009)의 연구에 의하면 베트남 국적의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양육효능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더불어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이, 경제력, 사회적지지(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한국어실력(김지현 외, 2009), 한국생활기간(김춘화, 2009)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관련 변인의 다소 일반적인 경향성을 나타내어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차별적으로 드러내주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었다.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중 특이할만한 점으로 막내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보고(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2008)가 있다. 이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경우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자녀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학습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부담감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실제 양육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는 여러 영역 중 학습지도능력에 있어 효능감이 가장 낮았다는 연구 결과(배경의, 이경혜, 김영희, 김수, 김희경, 김지현, 2010)는 외국인 어머니가 겪을 학습지도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전북 지역 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242명을 대상으로 한 이진숙(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학습이나 숙제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돕지 못한다는

비율이 12%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한국어를 이해하기 어려워(51%), 교과내용이 어려워(2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외국인 어머니가 겪을 양육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며, 이러한 현상이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가정의 부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한국인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지역, 학력, 소득 수준의 차이 등 사회경제적 변인을 연구자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결과가 다문화적 요소의 영향인지, 사회경제적 요소의 영향인지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비슷한 사회경제적 조건을 가진 토착민 가정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한 전은애(2008)의 연구는 다문화 가정의 종합적 이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가정은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의 질적 측면에 있어 일반가정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다문화가정 어머니는 상호작용 동안 일반가정의 어머니 보다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고,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아동과 함께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상호작용을 잘 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다문화가정의 낮은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이 이들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며 다문화 가정의 특수한 요인의 영향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양육경험을 분석한 질적 연구(김지현 외, 2009;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을 좀 더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 연구 모두 가족 간 양육방식의 차이(송미경 외, 2008), 양육주체에서의 소외됨(김지현 외, 2009)을 중요한 양육 경험으로 보고하여 가족 간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 결혼하여 이주해온 대부분의 베트남 여성들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사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가족문화가 우세한 남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 농촌사회의 가부장적 가족문화에 대해 차이와 갈등을 느낄 수 있다(서홍란, 김기연, 김양호,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이러한 차이와 갈등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있어 놀이나 학습지도와 같은 직접적인 지도보다는 애정표현이 더 많았고, 자녀의 정체성에 대해 '한국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언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표정으로 자녀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갈등 속에서도 다양한 전략과 시도를 나타내었다(송미경 외, 2008).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청소년이 어떠한 가족 환경에서 성장하는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 관한 소수의 연구들은 외국인 근로자 가족적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2007)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돈문제(37.3%)였으며 다음으로 학교교육(20.3%), 탁아(15.3%)였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다문화라는 배경과 더불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게 된다. 청소년의 다문화적 요소와 발달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아동기와는 다른 내적, 외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청소년기의 일반적 발달적 특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고 이러한 청소년기의 변화가 다문화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기에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가 나타난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성장폭 발(growth spurt)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신장과 체중이 급성장하고, 성적인 성숙이 급격히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생물학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또는 중재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Peterson, & Taylor, 1980). 즉, 신체적 변화는 호르몬을 통해 직접적으로 기분에 영향을 미치거나, 개인적 태도, 가치, 사고 등을 통해 중재된 영향력을 지닌다. 이 시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상(body Image), 성숙의 속도 등은 청소년기 자아개념의 기본 틀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기에 신체적인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러한 변화가 청소년의 인지, 정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다른 피부색, 생김새 등으로 인해 받는 주목은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기에는 아동기와 질적으로 다른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 대표적인 발달 심리학자인 Piaget에 의하면 청소년기에는 인지발달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formal operational period)에 다다르게 된다. 형식적 조작사고란 주어진 문제를 해결

하는 방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검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가설연역적 사고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겪게 되는 갈등에 대해 아동기와 다른 인지적 접근이 가능해지며 과학, 사회, 종교, 철학, 정치 등에 대한 다양한 가설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다. 즉 이 시기 다문화 청소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갈등에 대한 추상적 사고를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청소년기에는 사회인지적 측면에 있어서도 독특한 특성을 보이게 되는데 Elkind(1978)는 이를 청소년기 자아중심성(adolescent egocentrism)으로 개념화하였다(박아청, 김혜숙, 김창대, 1996 재인용). 청소년기 자아중심성이 나타내는 특성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개인적 우화(personal fable)와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상상적 청중(imaginary audience)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사회인지적 특성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허구적인 관념을 가질 수도 있으나, 상상적 청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심리적 에너지를 쓸 수도 있다.

넷째, 청소년기에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또래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커진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집단과의 연대를 통해 자기 가치, 욕구, 행동, 기준을 평가하고 일정한 방향을 지향하게 된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또래집단을 통해 연대감, 유능감, 인기 등을 얻을 수도 있으나 때로는 또래집단의 압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이해함에 있어 또래집단과의 관계와 역동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다른 또래들과 다른 배경과 특성으로 인해 놀림, 따돌림, 차별 등을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무엇보다 큰 위기요인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다섯째, 청소년기에는 중요한 발달위기 중의 하나인 자아정체감 위기가 시작된다. Erikson(1968)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이란 연속성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각으로,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개인으로 하여금 신념, 역할, 존재방식 등에서 '나는 누구인가(who I am)'와 '나는 누구는 아닌가(who I am not)'에 대한 분별을 가능하게 한다(Jaffe, 1998). 이 시기의 정체감 위기(identity crisis)는 병리적 현상이기보다는 자신을 새롭게 재정립하기 위한 자아와 세계 사이의 힘겨운 싸움이라 할 수 있다(김애순, 2005). 이러한 정체감 갈등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다문화 청소년에게 특히 심각한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다양한 문화 내에서 성장한 자신에 대해 통합

된 정체감을 가지는 기회로 활용된다면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초석이 될 수도 있다.

다.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앞서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이 청소년기에 겪게 될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청소년기에 도달한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다문화 청소년은 발달에 따라 어떠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다문화 청소년 적응과정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다양한 개입 및 지원을 위한 기초가 되지만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절에서는 다문화 아동을 포함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며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1) 언어문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 있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발달 문제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에 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언어발달에 있어 일반 청소년보다 어려움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성장기에 한국어로 이주해온 청소년은 물론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서현, 이승은(2007)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결정적 시기에 원활한 언어적 자극의 부족으로 인해 언어발달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국어에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언어적으로 원만하지 못한 상호작용을 한 결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언어발달에 있어 낮은 수준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배소영, 박금주, 김근영, 정경희, 김효정(2009)의 연구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 중 약 34%가 언어선별설문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됨을 보고하였으며, 김종철(200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표현력이 낮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은 한국의 일반 가정의 아동에 비해 높고, 높은 수준에 해당되는 비율은 한국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해 낮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발달문제를 드러내었다.

그렇다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 문제는 다문화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 기존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언어발달문제가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은희(2004)는 이해언어발달에 있어 3세 아동은 100%, 4세 아동은 44%, 5세는 13%로 연령에 따라 언어발달지체 비율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다문화아동과 일반아동의 언어문제해결력 점수를 비교한 박주희, 남지숙(2010)의 연구 역시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단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렇듯 아동의 연령 증가에 따라 언어발달이 다소 촉진됨에도 불구하고 학업 수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언어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연경(2008)은 말하기는 다른 아이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받아쓰기나 글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2006)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들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아동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언어문제는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정체성 형성 및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오성배, 2005).

한편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과 다른 언어환경에서 성장함에 따라 이중언어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다문화 청소년의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제기되었다(양계민 외, 2009). 특히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서는 자녀와 대화할 때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한국어와 모국어의 이중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김정원(2006)의 연구에서도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국내 학교에 재학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장 큰 성과가 한국어 학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직업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환경이 한국어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중언어 발달에는 긍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중언어 발달에 대한 적절한 개입방안 연구는 국내에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 발달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2) 학업·진로문제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 및 진로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분석함

에 있어 앞서 살펴본 언어발달 문제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초등학교 시기의 저성취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누적되어 위험성이 커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업 성취를 일반 아동과 비교한 안혜령, 이순형(2009)은 다문화 가정 아동이 지능을 통제된 후에도 일반 아동보다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업저성취 문제를 시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능은 단일요인으로서 학업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업 문제에 대한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 역시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으로는 학업 따라가기(50%)를 첫째로 꼽았으며 한국어의 미숙과 사교육 기회부족, 부모의 학업지원 미비가 그 원인이라 응답하였다(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전경숙(2008)은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학업중단 충동을 경험한 적이 있는 비율을 27% 정도로, 중학생의 경우 33.7%, 초등학교생 20.2%로 보고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학업중단의 위험에 노출될 위험성을 시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살펴보면, 배은주(2007)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업성취도는 개인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 잘 이해하는 과목은 수학과 체육이며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과목은 국어와 사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에 유창한 다문화가족 자녀 중 한국어에 유창하고, 한글 독해 능력이 우수할 경우에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다문화 자녀가 아닌 학생들에 비해 국어 읽기 분야에서 읽기 능력이 유창하지 못하고, 수학 문제를 풀 때 문제의 지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수학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 사회상황을 소개하는 사회 과목을 어려워한다고 알려졌다(조혜영 외, 2007). 즉, 다문화 청소년이 가진 취약한 언어환경 및 문화적 배경이 학업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학교 내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다소 어려움을 나타내 국제 결혼 가정 자녀들은 수업 상황에서 형식을 갖춘 질문과 답변에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발표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오성배, 2005).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이들의 학업수행 과정에 대한 성급한 일반화를 경계해야 한다. 성급한 일반화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개별적 상황과 무관하게 그들을 학업성취도 취약자, 소극적 참여자, 문제행동 유발 가능자 등으로 낙인할 우려가 있다(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특히 조혜영 외(2007)에 의하면 힘

든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한국어에 익숙해지고, 한국의 수업과정을 따라잡은 아이의 경우는 비교적 학업적응에 성공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성공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수행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나 다문화 청소년 인구의 연령 증가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진로발달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다문화 청소년이 진로에 대해 가진 관심에 비해 이들의 진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모색은 부족한 실정이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위한 개입 방안 역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심리정서적 문제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개념과 높은 우울, 불안 등 다양한 내재화 문제를 가질 위험성에 대해 제기하고 있다. 전영희(2010)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227명을 대상으로 K-YSR(Korea Youth Self Report)을 실시한 결과, 일반 청소년의 평균수준과 비교하여 내재화문제가 5.4% 정도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재화문제를 시사하였다.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우울을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 아동이 일반 가족 아동보다 우울을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자, 2007; 남윤주, 이숙, 2009b), 이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정서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어머니 애착, 일상적 스트레스 등이 우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남윤주, 이숙, 2009a), 어머니의 학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직업이 없을수록 우울/불안 점수가 높은 경향이 보고되었다(전영희, 2010). 특히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정 아동은 어머니 애착이 가장 강력한 변인으로 나타나(남윤주, 이숙, 2009b) 이주여성인 어머니와 건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아동이 다양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문화 속에서 성장함으로써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아정체감 혼란은 청소년기의 공통적인 발달과업이나 연구결

과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이 일반 청소년보다 보다 혼란스러운 양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송선진(2007)에 의하면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일반아동에 비해 전체적인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미래 확신성, 주도성, 친밀성의 발달이 낮았다. 그리고 자신의 외모가 남들과 다르다고 느낄수록, 한국어 실력이 낮다고 느낄수록 자아정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모, 언어발달 등이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 이승은(2007)의 연구 역시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신의 외모에 따라 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이들의 건강한 정체감 형성을 지원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4) 대인관계문제

다문화 청소년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들 중 가장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외모로 인해 친구들에게 부당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는 대인관계문제이다(정하성 외, 2007). 전경숙(2008)에 의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이나 차별 및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비율은 15.7%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놀림의 이유로는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기 때문에(36%)’, ‘특별한 이유 없이(26%)’가 높게 보고되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학교 및 학원 등에서 자신의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소외와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서현, 이승은(2007) 역시 다문화가정 아동의 대인관계 문제를 질적 분석으로 드러내었는데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또래와의 소극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사회성 및 성격발달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어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어머니와 불쌍한 아이라는 주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는 주변 또래의 성숙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음이 나타났다. 조혜영 외(2007)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언어와 외모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고학년의 경우 반 친구들이 의식적으로 다문화 배경 친구들에 대해 배려하고 있기도 하였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문제에 접근함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개입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의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인식 및 태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다문화 상담에서의 상담자 역량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상담자 자체라는 인식에 따라, 다문화상담 영역에 있어서도 다문화상담자 자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주은선, 이현정, 2010) 특히 청소년상담 현장에 있어, 한국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과 이들에 대한 개입만을 훈련 받은 청소년상담자들은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함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상담에 있어서는 기본 상담기술 외에도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및 새로운 조력 기술 등이 요구될 수 있으나 상담자들은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상담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자신이 가진 조력방식의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훈련받은 경험이 없어 다양한 시행착오에 직면할 수 있다. 다문화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상담자에게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가를 문헌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가. 다문화 상담을 위한 문화적 역량

상담에서 다문화 역량은 상담자의 기본적인 자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상담자는 문화적 민감성을 갖춰야 하는데 이는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인식뿐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기본적인 자질까지 포함한다. 상담자가 문화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함께 자기인식이 필수적이며, 본연의 문화, 가족, 동료들의 영향도 인식해야 한다.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문화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또한 내담자를 둘러싼 문화적 환경과 그들의 개인적 특성이 어떤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상담자의 인식과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상담자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민감하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춤으로써 전문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윤갑정, 김미정(2010)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시대 유아교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을 지식, 태도, 기술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지식적 측면으로 다문화의 개념 및 다문화 교육의 가치에 대한 지식, 국내 다문화가정의 이주에 대한 역사적 지식, 다문화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대한 지식, 한국문화에 대한 지식, 아동인권에 대한 지식을, 둘째, 태도적 측면으로 문화적인 포용력과 수용적 태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

자기반성과 자기성찰, 새로운 문화에 대해 배울 용기, 부모와 협력관계 형성하기를 셋째, 기술적 측면으로 유아에게 정서적 지원하기,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술, 부모교육 및 부모참여 유도기술, 지역사회와 부모를 연결하는 허브역할하기, 다문화교육을 위한 교수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문화 상담 장면에서는 개인의 내적 문제가 문화적 이슈와 결합되기 때문에 상담을 운영하는 상담자 입장에서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Sue, Arredondo, & McDavis(1992)는 AMCD(the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라는 모델로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을 구체화 하였으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각 실천영역에서 다문화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AMCD 모델에서는 다문화 상담자 역량을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각 차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세 가지 차원으로는 첫째, 상담자가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둘째,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이 필요하고, 셋째, 상담자가 상담에서 적절한 다문화 개입전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 내에 다문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권 내담자를 만나는 상담자에게도 다양한 역량이 요구된다. 일차적으로는 모든 상담에서 기초가 되는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상담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거기에 다문화권 내담자를 이해하고 조력하기 위한 다문화적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다문화권 내담자의 특성상 지역사회의 자원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추어 필요한 서비스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한국적 다문화 상담자는 우리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을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헌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림 4와 같은 다문화상담자 역량 지표를 정리하였다. 모형에서 나타난 다문화 상담자의 세 가지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본 상담 역량

상담이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을 들 수 있다. 여기에는 진실성, 인간에 대한 관심, 정서적 성숙, 심리적 안정감,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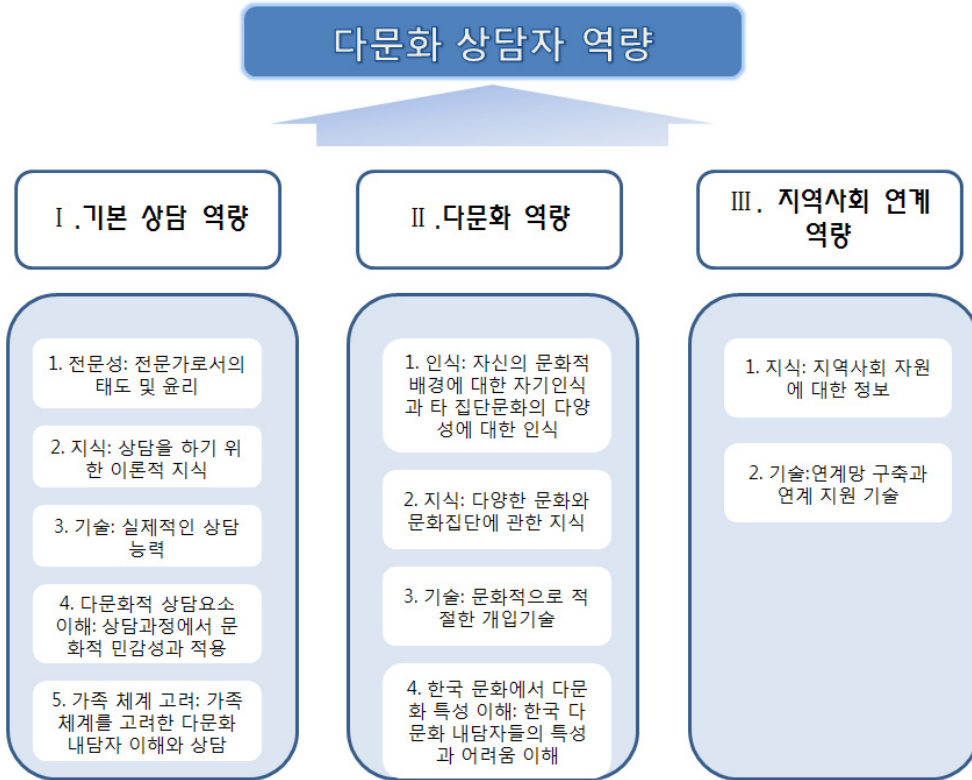


그림 4. 문헌연구에 기초한 다문화 상담자 역량 지표

감성 같은 특성들이 포함된다. 미국 상담자 교육 및 지도 협회(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64)에서는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로 개인에 대한 신뢰감, 개인의 가치 존중, 세계에 대한 경외심, 개방적 마음, 자기 이해, 전문적 헌신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충기, 강봉균(2001)은 상담자의 전문적 자질로 성격에 대한 이해, 사회 환경에 대한 지식, 개인의 진단 평가, 상담 이론과 실제, 상담실습, 연구방법과 통계 기술, 책임과 윤리 등을 지적하였다.

다문화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상담 역량들을 전문성, 상담을 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 실제적인 상담 능력, 다문화적 상담 요소에 대한 이해, 가족체계를 고려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성 : 전문가로의 태도 및 윤리

본 연구에서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은 상담자의 인간적 자질에 더해 전문가로서의 태도 및 윤리에 대한 부분을 말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는 인간복지에 기여하는 전문가로서 그에 맞는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부분은 학위 과정, 자격증, 교육, 연수 등을 통해 이룰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담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는 상담자로서 인간에 대한 성실성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부분이다. 상담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교육·훈련과 지도 감독을 받는 것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둘째, 상담자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존중하고 사회의 공익을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여성과 소수 민족에 대한 억압과 차별,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주의 지속, 노인에 대한 무관심, 아동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등과 같은 인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정치적 쟁점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인간권리와 존엄성에 대해 존중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내담자의 비밀유지와 사례 기록 정보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미성년자나 비자발적 내담자의 경우, 이런 내담자의 최상의 복지를 염두에 두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상담자는 내담자와 이중관계나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내담자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유지에 대한 내담자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기록에 대해서는 내담자의 동의를 구한다.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에서 비밀보호가 유지될 수 없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여섯째, 상담자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윤리적 기준에 따라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연구대상자를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불편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일곱째, 상담자는 심리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이 내담자의 복리와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평가결과와 해석을 오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본인이 훈련받은 검사와 평가만을 수행해야 한다.

나) 지식 : 상담을 하기 위한 이론적 지식

상담자는 상담 실체에 필요하고 상담과 내담자 이해에 근거가 되는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상담 및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체에 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내담자에게 맞는 접근방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담자의 인간 성격과 발달에 관한 이해는 내담자의 개인차를 알 수 있게 해주며, 내담자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상담자는 부적응을 일으키는 이상심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다양한 이상심리의 이해를 통해 내담자가 보이는 증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개입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심리검사를 사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검사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검사의 오용과 남용을 막고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상담자는 개인을 상대로 상담을 할 수도 있지만, 집단을 상대로 상담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이론과 실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상담자는 상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것을 위한 통계 및 연구 방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 기술 : 실제적인 상담능력

상담자는 상담을 실제로 수행함에 있어서 그에 필요한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상담 기술로는 경청, 공감, 수용과 관심, 진실성, 개방적 태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외 구체적인 기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요구된다.

첫째, 상담자는 자기 자신을 잘 인식하면서 내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집단을 상대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기술들을 잘 알고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론마다 다양한 기술들이 있지만, 집단상담의 치료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와 집단상담의 과정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과 목적에 맞게 집단을 구성하고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를 진단하고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상담자의 가치관이나 이론에 따라서는 심리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도 하지만, 상담 실체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에 맞는 지식과 훈련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담 실제에서 의문시 되었던 부분의 이론이나 가설을 확인 할 수 있는 연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은 상담자가 좀 더 광범위한 관점으로 상담 실재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다문화적 상담요소 : 상담과정에서 문화적 민감성과 적용

다문화 상담자의 기본 상담역량에서 다문화적 상담요소는 상담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화적 민감성에 대한 부분과 실제 적용에 있어서 상담자의 자세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문화 상담에서는 메타이론적 접근 즉,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이나 부적응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

상담자-내담자 관계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의식, 관습, 신념 등에 대해 교육을 받거나 내담자에게 물어보아야 하며, 각 상담이론별 접근에 있어서 내담자의 문화적인 수용도(언어적·정서적·행동적 표현 경향성, 통찰, 자기개방, 과학적 경험주의)를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와의 상담에 있어서 치료관계에서 문화차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전이와 역전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가 이러한 부분에 충분한 민감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갑자기 상담이 종결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다문화 내담자와 치료동맹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상담자의 솔직한 문화적 자기경험을 개방할 필요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다문화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첫 회기에 호소문제와 인종, 문화적 요인의 관련성에 대해 민감성을 가지고 관련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마) 가족 체계 고려 : 가족체계를 고려한 다문화 내담자 이해와 상담

다문화 상담에서 가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일 문화권의 내담자보다 더 두드러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내담자를 이해하고 상담하여야 한다.

상담자는 개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가족 체계적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가족의 경우 그들 가족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개인 상담을 함에 있어서 가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소수집단의 경우 가족 구조, 위계, 가치, 신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중요하

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족 개입 전략과 기술을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

2) 다문화 역량: 문화적 유능성

Lynch(2000)는 문화적 역량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인종적 혹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족적·문화적·언어적인 다양성에 놓여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Brach와 Fraser(2000)는 문화적 역량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다른 문화적 관점을 존중하고 문화적 지식을 가지기 위한 문화적 자각과 문화적 민감성을 넘어 확장된 개념으로 보고 있다(윤갑정, 김미정, 2010, 재인용).

Sue와 Torino(2005)는 다문화 상담/치료를 치료과정과 상담자 역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문화 상담과 치료는 조력하는 역할이자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내담자의 생활 경험 및 문화적 가치와 일관된 상담 목표와 양식들을 사용한다. 내담자의 정체성을 개인, 집단 그리고 보편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조력과정에서 개인적, 문화 특수적 전략과 역할을 사용하며, 내담자와 내담자 체계를 평가하고 진단하며, 치료할 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간 균형을 맞춘다.”

다문화 상담의 정의에 따르면, 상담자가 지녀야 할 다문화적 역량으로는 첫째, 인간 행동, 가치, 편견, 선입견, 개인적 한계 등에 대한 자신의 가정을 인식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인식), 둘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의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지식), 셋째,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와 작업할 때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밀접하며 민감한 개입전략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는 것(기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문화의 특성을 바탕으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것을 더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담자가 지녀야 할 다문화 역량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식 :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다문화 상담자는 상담자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인식과 타 집단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하여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자신의 편견, 가치 또는 콤플렉스로 인하여 다양한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자신과 내담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가 어떤 내담자에 대해 문화적인 역량과 전문성에서 자신의 한계가 인식되면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문화 상담자로서 자기에 대한 탐색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인종차별주의, 성차별주의 등과 같은 문화적 차이에 관련된 태도, 신념, 감정에 대한 정서적 영향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다문화 내담자를 만남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이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 지식 : 다양한 문화와 문화집단에 관한 지식

다문화 상담자는 다양한 문화와 문화집단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 일상생활 경험, 희망, 두려움, 그리고 포부의 범위와 본질에 관해 실질적인 정보를 얻게 하고, 내담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와 그가 속한 문화집단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져야 한다. 상담자가 반드시 자신의 문화만을 고수해야 한다거나 무조건 내담자의 문화에 동화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해 비판단적인 태도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자가 소수인종 출신의 개인처럼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지적 공감은 가능하다.

상담자는 사회 비주류 집단의 치료에 관한 사회정치적 체계의 움직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담자는 이주자의 문화적응과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주자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와 보호요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내담자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적응의 궤적을 예측함으로써 개입서비스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상담자는 적응 스트레스가 빚어내는 심리, 정신 보건의 문제로서 우울증, 불안증, PTSD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양한 내담자들이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벽들 등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기술 :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기술

다문화 상담자는 문화적으로 다른 내담자와 작업할 때 내담자에게 적절하고 밀접하며 민감한 개입전략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오랫동안 치료에서는 내담자들이 유사한 배경과 문화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일한 접근이 모든 내담자에게 동등하게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가정해왔다. 하지만, 전통적인 치료형태가 내담자의 사회정치적·문화적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내담자 개인, 가족 그리고 집단 뿐 아니라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제도, 정책 그리고 관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문제가 내담자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존재할 경우 특히 그러하다. 따라서 상담자는 필요할 때 문화적으로 적절한 개입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상담자는 언어가 다른 문화의 내담자와의 상담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조력반응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정확'하고 '적절'하게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들을 충분히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적절할 때 내담자를 위해 제도적 개입 기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문화적으로 자신이 가진 조력 방식과 한계점의 영향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문화 상담자는 전통적인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가정,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와 같이 사무실 밖에서도 일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내담자 개인의 변화와 함께 환경적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조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한국문화에서 다문화 특성 이해 : 한국 다문화 내담자들의 특성과 어려움 이해

상담자는 한국문화에서 다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한국 다문화 내담자들의 특성과 어려움을 이해하여 총체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상담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상담의 대상과 양상은 한국 사회의 독특성으로 인해 서구문화권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한국 다문화 가정은 대부분 국제결혼, 이주노동자, 새터민으로 이루어져있으므로 이들 가정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개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다문화 상담에서 다문화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내적 문제보다 더 결정적일 경우가

있음을 이해하고, 거시적인 정책과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상담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 상담에서 상담자의 복합 역할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심리상담 외에 총체적 복지 서비스의 요구가 있다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지역사회 연계 역량

다문화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연계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 상담자의 지역사회 연계 역량은 전통적인 상담자 역할에 보다 적극적이고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상담자의 역할을 요구한다. 상담자가 상담실 안에서만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공공기관 또는 지역사회와 같이 사무실밖에서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담자 개인의 변화보다는 환경 조건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둘 수도 있다. 지역사회 연계 역량 부분은 상담자가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는 것(지식)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원(기술)하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 지식 :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정보

상담자는 그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내담자에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부,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는 것은 내담자의 어려움을 직접 조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상담자가 아는 정보만큼 내담자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에게 필요한 교육 및 학업지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진로지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2010년부터 경상북도에서는 이주여성의 전문직을 위한 학위취득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위취득 지원비 1인당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상담자가 이러한 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 내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적절히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의 취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와 다문화 내담자가 받을 수 있는 의료건강지원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가 사회적 보호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여성 이주민들은 모·부자 복지법에 의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자립시설, 모·부자 공동생활가정, 여성복지관,

모부자가정상담소 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국제결혼 여성이주민 중에서 ㉓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㉔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㉕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㉖'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는 생계비나 아동양육교육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과 같은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보호대상자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모·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가 받을 수 있는 법률 및 행정적 지원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여가 및 문화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밖의 자원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나) 기술 : 연계망 구축과 연계지원

다문화 상담자는 다문화 내담자를 돕기 위한 지역사회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유기적 관계를 유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미리 구축되어 있는 연계망을 통해 쉽고 빠르게 내담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한다. 잘 구축된 연계망을 이용하여 내담자의 호소문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문화적 역량의 발달

앞서 문화적 역량은 다인종적 혹은 다문화적 상황에서 민족적, 문화적, 언어적인 다양성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Lynch, 2000)으로 정의한 바 있다. 문화적 역량은 단일 차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문화, 국가, 성, 세대, 지역의 개념을 포함하는 사회적 역량으로, 관용, 수용, 문화 간 역량을 포함하는 것이며, 성, 세대, 문화, 종교 사이에서 시스템적 소통의 형태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여러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문화 또는 문화 간 감수성에 대한 인식은 일정한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형성된 부분이다. 문화 간 감수성 발달에 대한 이해

는 Bennett(1993)의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 발달 단계이론(표 9)과 Heard(1999)의 다문화 수용과정(표 10)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9. Bennett(1993)의 문화차이에 대한 감수성 발달 단계

자민족 중심적 상황	
자신의 문화가 현실인식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차이를 피한다.	
1. 부정	자신의 문화만이 진짜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와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문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피한다.
2. 방어	다른 문화들 간에 구분은 할 수 있으나, 역시 자신의 문화만이 가장 세련되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한 것으로 여긴다.
3. 경시	문화차이를 회피하는 가장 교묘한 전략을 사용한다.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가 있어도 경시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문화와 같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문화와 세계관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긴다.
민족 상대주의적 상황	
문화차이를 추구하고 타문화의 맥락에서 자신의 문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4. 수용	타문화가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복합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5. 적응	관점을 자신의 문화와 타문화의 세계관 사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6. 통합	문화적 정체감을 강조한다. 다문화적인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감을 어느 한 문화에 정박시키지 않고 넓어진 경험세계를 포괄하기 위하여 자아 정체감을 재정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정진경, 양계민(2005) 일부를 토대로 정리함.

표 10. Heard(1999)의 교사들의 다문화 수용과정

	단계 1	단계 2	단계 3
자기인식수준	나의 관점이 옳다 또는 유일하다.	나의 관점은 많은 것들 중의 하나이다.	나의 관점은 점점 변화되고 있다.
차이에 대한 정서적 반응	두려움/거절/부정/우리는 모두 동일하다	관심, 인식, 개방	이해/존중, 기쁨/열중, 능동적 탐색
문화적 상호작용 양식	고립, 회피, 적대	통합, 상호작용, 수용	변형, 내면화, 보상
교수에 대한 접근	유럽중심/ 자민족중심 교육과정	다른 문화에 관한 학습	다른 문화로부터 학습
관리에 대한 접근	단문화적, 독재적, 지시적	승낙, 관용	협동적, 가치부여, 다양성/ 잠재성의 극대화
	위험한 상태	→ 개인적 진보	→ 계속적인 과정

안병환(2009)에서 재인용

다.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다문화 상담자의 역할

한국에서 다문화상담의 개념은 서구 문화권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과 동일하지만, 다문화상담의 대상과 상담의 양상은 한국 사회의 독특성으로 인해 서구문화권과 상당히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이슈는 내담자의 심리적 고통을 포함한 다양한 어려움을 총체적 복지 차원으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단일 민족 사회에서 다민족 사회로 진입하는 관문에 있다.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개인적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다문화 인구가 한국 사회에 유입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 또한 매우 다양하며 생활전반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상담이라는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를 접근할 때 상담자는 전통적 상담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적 다문화상담 장면에서는 상담자에게 서구의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적 다문화상

담에서 다문화상담에서의 보편적 역량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특수성을 반영한 역량을 동시에 요구하게 된다.

1)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역량

가) 상담자 복합 역할에 대한 인식

한국 다문화사회는 그 구성에서 한국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산업화와 국제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면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덜 발전한 나라의 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 여성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동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가정과 자녀들이 한국사회에서 공존하고 있다. 기타 유학생, 주재원 등과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다문화 인구도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결혼이주 여성 및 자녀, 외국인 노동자 및 자녀를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들은 제도적, 정책적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혼란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다문화 민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사회적 수용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혼란은 이들의 적응을 어렵게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합법적 체류문제, 경제적 문제, 직업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통합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할 한국적 다문화상담은 현실적으로 전통적인 심리상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심리적 갈등을 다루는 상담을 포함하여 총체적 복지 개념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 다문화상담에서 개인의 내적 역동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오히려 내담자의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이 지속되기 어려워지고,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한국적 다문화상담에서는 내담자의 심리적 문제와 외현화된 생활영역 전반의 문제를 연결시켜 보다 복합적인 방법으로 내담자의 현재 어려움에 접근해야 한다. 이는 전통적 상담을 고수해 왔던 상담자에게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다.

나) 다문화 정책, 다문화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체적 복지차원에서 다문화 내담자의 어려움을 접근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이슈이다.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책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 사회적 혼란 시점에서 발생하는 정책문제나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다문화 정책에 대한 민감한 인식, 사회적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인식과 평가, 소수 집단 기본권을 위한 사회적 정의 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문화 상담에서 다문화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개인의 내적 문제보다 더 결정적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내담자의 개인 내적 갈등의 해결과 사회복지 제공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내담자가 가장 무력감을 느끼게 되며, 상담자 또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담자가 관련 정책, 사회적 이슈 등을 경외 시 하지 않고 보다 내담자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내담자가 그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와 심리적 경험에서는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로서 정책문제, 사회적 이슈 문제 등을 실제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해야만 내담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 상담자는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책 제안 등의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상담자에게 보다 거시적 사회적 문제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요구하게 된다.

6. 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최근 심층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개입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문화상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문화 청소년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문화 인구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서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환경적 측면, 발달적 측면, 적응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한편, 다문화 청소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자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기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다문화 가정 전체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연령도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수는 점차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다문화

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을 정비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들은 거시적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보다 심층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개입전략을 수립하는 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이주배경,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적 특성 등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이주노동자가정의 청소년은 각 가정사, 개인사에 따라 다양한 이주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이주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적 특성에 있어서도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다소 다른 환경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 개인에 심리내적 개입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을 이해함에 있어 다문화적 특수성의외에도 일반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제기되어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기의 공통적인 발달과업이 분석되었다. 즉, 청소년기의 신체적 변화, 인지적 변화, 사회인지적 독특성, 또래집단과의 관계, 자아정체감 발달 등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발달과업을 이해하고, 개입전략 수립에 있어 이러한 청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적 특성과 발달적 특성을 잘 융합한 상담전략 개발이 요구되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환경과 발달에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 청소년은 언어발달, 학업·진로, 심리정서,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은 연령 증가에 따라 일상생활 의사소통에 능숙해지더라도 학업에 필요한 언어기술은 부족한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언어문제가 학업 및 진로문제에도 영향을 미쳐 저성취가 누적될 잠재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심리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등 내재화 문제를 드러낼 수 있으며, 대인관계

에 있어서도 소외와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문제는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민족주의가 강한 한국 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개인적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해결력을 증진하고,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개입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개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다문화 상담자들의 준비도는 미약한 실정이므로 다문화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 필요한 다문화 상담자 역량은 서구 사회에서 강조되어온 문화적 가치와 편견에 대한 인식, 내담자의 세계관에 대한 상담자의 인식, 적절한 다문화 개입전략과 같은 역량 외에도 상담자의 복합적 역할에 대한 인식, 다문화 정책, 다문화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등이 강조되어야 함이 나타났다. 즉, 상담자 스스로의 문화적 민감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개입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상담자 발달에 있어 상담자 스스로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다문화 청소년 상담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 수련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Ⅲ.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한 요구분석

본 연구의 상담매뉴얼 개발 절차(72쪽)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사전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서비스의 공급자인 다문화 현장 전문가와 서비스의 수혜자인 다문화 청소년을 심층면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다문화 상담매뉴얼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요구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진은 다문화 상담자와 청소년으로부터 어떤 요구를 파악할지를 검토한 후 요구조사의 방법과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현장전문가가 파악한 다문화 청소년의 어려움과 다문화 상담의 특성을 우선 분석한 후 다문화 청소년 면접에 필요한 질문을 구조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위해 먼저 상담자 면접을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참고하여 다문화 청소년 면접에서의 질문들을 추출해냈다. 구체적인 요구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전문가 요구조사

가. 현장전문가 요구조사의 목적

현재 국내에는 다문화 상담에 있어 상담자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하며, 어떠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직 다문화상담의 역사가 길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상담자들의 수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및 지도를 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경험과 다문화 상담에서 필요한 요소를 탐색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주요 호소문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분석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를 도출해 내고자 하였다.

나. 조사 대상 및 방법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에서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에 의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전문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현장전문가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눈덩이 표집 방식은 연구자가 조사표본에 대한 접근 가능 방법을 명확히 알지 못할

때 처음 접근이 가능한 소수의 사례를 조사하고, 조사된 사례의 협조를 얻어 이들로 부터 추가적 사례를 계속 확보해나가는 표집 방법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상담자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여겨진다. 특히 많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이 다문화 청소년을 조력하기 위해 각자의 연 계망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접근은 현실적이며 타당성 있는 접근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표집 방식에 의해 9명의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를 표집하여 1시간~1시간 30분 분량의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대상자 선정 시 국제결혼가정 청소년, 이주 노동자가정 청소년 등을 상담 및 지도해본 현장전문가들이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현장전문가의 성별은 남자가 3명, 여자가 6명으로 여 자가 더 많았으며 연령대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였다. 이들은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연구원, 교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에 있었으나 공통적 으로 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 관련분야의 근무경력은 최소 1년 4개월에서 최장 10년으로 나타났다.

표 11. 현장전문가 인적사항

사례번호	성별	연령	소속기관	직종	다문화 관련 경력
사례1	남	30대	다문화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6년
사례2	남	30대	다문화 청소년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10년
사례3	여	50대	외국인학교	교사	4년
사례4	여	30대	외국인근로자센터	사회복지사	4년
사례5	여	40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4년
사례6	여	30대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3년
사례7	여	40대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	9년
사례8	여	30대	외국인근로자센터	사회복지사	1년 4개월
사례9	남	40대	다문화 대안학교	교장	5년

면접은 반구조화 면접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세한 질문 영역은 표 1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면접지는 심층면접의 질문은 기존의 이주여성, 새터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참조하여 연구자간의 합의에 의해 개발하였다. 우선 참여자의 인적사항

표 12.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질문 영역

질문 영역	상세 질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근무경력/다문화 청소년 상담(지도) 실무 경험
다문화 청소년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만나는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 연령, 기타 특이사항은 무엇입니까? • 다문화 청소년이 주로 힘들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어떤 유형(연령)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가장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문화 청소년 상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까지 상담한 다문화 청소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는 어떤 사례였습니까? • 그 사례를 지도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공적인 사례 외에 실패했던 또는 아쉬웠던 상담 경험은 어떤 사례였습니까? • 그 사례를 상담하는 데 있어 실패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상담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역량 발달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 상담 매뉴얼 개발에 있어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에 대해 물은 후,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경험을 질문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에 있어 상담에 있어 중요한 상담자의 역량과 주의해야할 부분, 전문성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면접은 본 연구자들과 석사 학위를 가진 연구보조원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수집된 면접 자료는 필사된 후 질적 분석 과정인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후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방법 중 하나인 CQR은 Strau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과 Elliot(1989)의 집중적 과정분석을 결합하여 Hilll 등(1997, 2005)이 개발한 질적분석방법으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연구대상의 경험 내용을 범주화하고 그 경험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양미진, 이영희, 2006, 재인용). 특히 CQR은 기존의 질적연구방법의 객관성 결여와 결과의 반복성, 엄격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복수의 연구자(분석팀)가 참여하여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과 사례간의 대표성을 검토하는 체계적인 방법을 강조한다

(지승희, 2001). 자료분석과정에서 분석팀은 자료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각 분석자들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확인하고 그 차이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나가는 절차를 따른다. 또한 분석팀이 중요한 자료를 보지 못했거나 자료해석에 편향된 관점이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수자가 분석팀의 합의 판단을 점검하는 절차를 따른다(양미진, 이영희,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전문가의 경험을 기존 이론의 구성요소에 제한받지 않고, 피면접자의 경험을 통하여 현상을 탐색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질적 연구의 객관성 결여가 보완된 CQR을 연구방법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내용을 주제별로 구분하는 영역부호화 과정에서 4명의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팀이 4개의 사례를 함께 읽고 합의하여 각 영역으로 도출하였다. 영역이 합의된 후 연구자 4명은 나머지 5사례에 대해 각자 사례를 읽고 영역을 구성한 다음 다시 모여 토의를 거쳐 영역을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연구팀은 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한 박사 3명, 석사1명이며 평균 상담경력은 11년이다. 감수자는 상담심리전문가이며 CQR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이다. 이러한 영역 부호화 결과 18영역이 도출되었다. 영역은 이후 요약과 교차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정이 되었고 최종적으로 15개 영역이 결정되었다. 확정된 영역으로는 다문화 상담관련 경력,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에 따른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특성, 상담기관에 의뢰하는 경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유형,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실태, 다문화 가정의 측면에서의 상담의 어려움, 상담자의 준비성 부족,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상담자 역량개발을 위한 노력, 다문화 상담자 역량, 현재 다문화 상담의 문제점 등이다.

각 영역마다 9 사례 모두에서 나타난 것은 '일반적(general)', 5사례 - 8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 '전형적(typical)', 4 사례 미만에서 나타나는 경우 '드문(variant)'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Hill 외(2005)의 표집의 대표성 결정과정에서의 분류방식을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면접 내용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다. 현장전문가 조사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면접내용을 통하여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정도, 상담자의 관점에서 보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실제 다문화 상담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영역별 반응 예시는 부록에 수록하였다.

1)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정도는 어떠한가?

표 13. 다문화상담 관련 경력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상담관련 경력	1) 다문화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다	드문 (4)
	2) 다문화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7)

가) 다문화 상담 관련 경력

다문화 청소년을 만나고 이들에게 상담과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청소년 지도자의 경우 다문화 관련 경력은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다문화 상담 경력은 4사례 ‘드문’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까지 다문화 청소년 상담 영역이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주된 지원영역이 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양성과 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 현장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양상은 어떠한가?

표 14. 현장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양상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에 따른 특성	1)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은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다	드문 (3)
	2) 중도입국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14)
	(1) 진로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4)
	(2) 불법체류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3)
	(3) 가족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4)
	(4) 정서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3)
3) 새터민 청소년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드문 (3)	
2. 다문화 청소년 연령에 따른 특성	1)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드문(4)
	2) 중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가지고 있다	드문(3)
3. 상담기관에 의뢰되는 경로	1) 다문화 전문기관에서는 잘 의뢰하지 않는다	드문(2)
	2) 다양한 경로로 의뢰된다	드문(3)

4.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유형	1) 한국 문화와는 다른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드문(4)
	2)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다	전형적(6)
	3) 언어문제, 한국말 배우기 힘들어한다	전형적(7)
	4)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다	드문(3)
	5) 정신건강문제가 있다(불안 우울 등)	전형적(7)
	6) 진로문제를 가지고 있다(제도적, 개인적 요인)	일반적(9)
	7) 학업, 학습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5)
	8) 불법체류문제를 가지고 있다	드문(2)
5.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1) 이주배경이 달라도 다문화 아이들만의 공통점이 있다	전형적(5)
	2) 국가나 종교에 따라 다문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드문(3)
6.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실태	1) 다문화 상담실이 아닌, 다른 경로(학교, 지역 아동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드문 (2)

가) 이주배경에 따른 특성

현장에서 만나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북한 탈출과정에서 충격적인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한국에 정착과정에도 정신건강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체감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이들은 부모님 중의 한 명은 외국인으로 이중언어와 이중 문화권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외모, 언어, 부모의 국적 등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로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여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 즉,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는 진로 취업 거주 자체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 지원기관에서조차도 ‘불법’이라는 굴레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따라서 이들은 향후 진로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즉, 불안정한 신분, 부모님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진학에는 신경 쓰기가 어렵고, 또한 오랜 기간 부모님과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족 간

에 긴장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드문), 정서적으로도 우울감, 불안 등을 호소하는 (드문) 등 보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 다문화 청소년 연령에 따른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친구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드문). 이들의 한국인과는 다른 외모나 언어문제는 쉽게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초등학교를 거치며 언어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에서는 학업에 대한 어려움이 나타난다. 학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과는 달리 이해와 적용 능력 등이 요구되며 한국의 교육과정상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교육과정은 난이도가 높아 다문화 청소년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상담기관에 의뢰되는 경로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다문화 기관에서 상담기관으로 청소년을 의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연계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도리어 다양한 경로로 의뢰된 다문화 청소년을 지역의 상담센터에서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이 체계적이지 않고 현실적 고민이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연계협력안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 유형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사회에 적응하며 다양한 문제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한국 부모와는 다른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즉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이나 학습에 관련된 부분을 챙기는 것에 비해 다문화 가정의 부모는 문화권에 따라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준비에 자녀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미처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로 인한 교육과 양육방식으로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외모, 언어, 경제적 문제 등으로 차별을 경험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따돌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 대부분은 언어문제로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언어는 그 문화와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자체가 불편하고 적응이 힘들 수밖에 없다. 이밖에 진로문제, 학업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나타났다. 특히 진로문제의 경우 9명의 지도자 모두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 진로문제는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다(일반적). 즉 이주배경과 연령에 구별 없이 모두 진로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진로와 함께 학업문제를 가지고 있으며(전형적) 학교에서의 낮은 학업성취는 학교 적응에 장애요인이다. 실제로 현장에서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서비스 가운데 학습지원 멘토링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외모, 언어,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자신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감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어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마)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본 연구 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다른 문화권에서 적응해야 하는 공통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의 경우 언어, 학업 문제 등으로 차별당한 경험이 있고 관계의 어려움을 지남에 따라 위축이나 자신감의 저하 등을 보이고 있다(전형적). 현장 전문가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을 대하는데 있어서 그들 국가나 종교, 문화권의 독특성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을 강조하는데(드문) 이는 자칫 개별 문화에 대한 이해 없이 다문화 청소년을 만나는 경우 다문화 청소년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줄 수 있으며 현장 전문가로서 각각의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상담지원을 받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이 상담센터가 아닌 지역의 아동센터, 다문화

지원센터, 부분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드문),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상담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기관과 상담센터와의 유기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에 청소년 상담자의 배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다문화 청소년상담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현장의 전문가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 상담은 일반 청소년 상담과 비교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은 다문화 가정의 특징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역량 부족이 그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15.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어려움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가정 측면에서의 상담의 어려움	1)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경제적인 문제, 학업문제 등이 더 시급)	드문 (4)
	2)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 (1) 자신이 외국인임을 숨기고, 자기노출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	전형적(8) 드문(2)
	(2) 맞벌이로 상담에 참여 못한다	전형적(7)
2. 상담자의 준비성 부족	1) 다문화 역량을 갖춘 상담자가 없다	드문(4)
	2) 상담자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5)

가) 다문화 가정의 측면에서 상담의 어려움

다문화 상담의 어려움으로는 우선 이들이 상담보다는 더 시급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드문).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문제, 아이들의 학업문제의 시급함으로 심리적인 불편감은 돌볼 여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부모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상담실에 데리고 오고 함께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또한 부모가 자녀의 상담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전형적) 이 배경에는 자신이 외국인임을 숨기고자 하는 부모의 방어적인 자세 등(드문), 한국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다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나) 상담자의 준비성 부족

다문화 상담의 어려움에 있어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현장에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요구가 있으나 다문화 상담자로서 역량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더욱이 상담자 자체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어 도리어 상담자나 교사가 다문화 청소년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전형적) 현재 다문화 상담자의 양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4)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현장의 지도자의 심층면접 결과 다문화 청소년에 도움이 되는 상담과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역량 개발의 필요성, 현재 다문화 지원사업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다.

표 16. 다문화 상담자 역량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1) 찾아가는 상담이 적절하다	드문 (3)
	2)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담을 한다	드문 (3)
	3) 생활지도 멘토링을 한다	전형적(5)
	4) 내담자에게 필요한 곳으로 연계한다	전형적(8)
	5)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	드문(3)
	6) 적절한 관심/넉치게 주어서는 안 됨	전형적(5)
	7)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	전형적(5)
	8)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전형적(5)
	9)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드문(3)
2. 상담자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1)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1) 상담자로서 관련분야교육을 받아야 한다	드문(4)
	(2) 다문화상담의 이해, 다문화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9)
	2)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노력	전형적(5)
	(2) 상담자로서 다문화에 대한 자기-인식을 점검한다. (편견, 고정관념)	드문(3)
	(3)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대하자	전형적(8)
(4)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공부하자	전형적(6)	
3. 다문화상담자 역량	1) 다문화 상담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드문(4)
	2) 연계역량이 필요하다.	전형적(5)
	3) 가족과 부모에 대한 개입	전형적(7)

	1) 다문화상담 전문센터가 부족하다.	전형적(5)
4. 현재 다문화 상담의 문제점	2) 부처 간에 중복되고 제한된 곳에 집중된 지원	드문(4)
	3) 다문화상담자 소진문제가 심각하다	전형적(5)

가)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개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상담방법이 고안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선 청소년에게 필요한 곳으로의 연계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상담서비스 이외에 경제적 지원, 학습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역에 대한 연계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 내 적응을 위하여 생활지도 등의 멘토링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전형적). 또한 상담에 대한 인식부족,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상담실을 찾을 시간의 부족으로 상담을 할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하여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또한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전통적인 상담방식에 한계가 보여질 수 있으므로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에 대한 동기를 높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드문). 이와 같이 일반 상담과는 다른 상담방식의 고안과 함께 상담과정에 있어서는 이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인관계(드문), 변화시킬 수 없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수용(드문), 각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전형적), 무엇보다도 상담이 지지자원이 되어 주어 내담자의 낮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점(전형적)에 주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관심과 과도한 지원은 도리어 다문화 청소년에 부정적 영향(전형적)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다문화 상담자의 균형 잡힌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나) 상담지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현재까지 다문화 상담자로서 역량을 갖춘 다문화 상담자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이 우선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상담자로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드문).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리의 다문화 상담은 상담센터 보다는 지역의 다문화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의 지도자의 경우 다문화 관련 지식과 노하우에 비해 상담자로서의 훈련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담자 교육의 필요성 강조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상담자는 반드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이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적). 즉 다문화 청소년이 속한 문화에 대한 이해,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해 등이 없이 이루어지는 상담은 내담자에게 도리어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상담자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들의 문화에 대해 인정해주어야 한다(전형적). 또한 다문화에 대한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없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드문). 다문화 상담자는 진심으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전형적). 이 모든 것은 상담자가 끊임없이 다문화 청소년을 만나고 이들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통하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다)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자는 결국 전통적인 상담자의 역할 이상의 것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드문). 특히 필요한 자원으로의 연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전형적), 연계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책임감 있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상 가족과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 상담자의 부담은 가중되나 이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전형적).

라) 다문화 상담의 문제점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으나 실제로 현장에서의 체감 관심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에 대한 일시적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위한 전문센터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전형적). 이밖에 정부차원에서 부처 간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다양한 이주배경을 지닌 모든 다문화 청소년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이 강조 된다(드문). 즉, 한국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다문화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드문). 또한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상담자의 소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적은 인력과 급여는 상담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을 매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업무는 상담자의 체력을 고갈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상담자 소진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다문화 청소년 요구분석

가. 조사대상 및 내용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한국 사회 내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심층면접에서는 다문화 현장 전문가의 소개로 현재 다문화 청소년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14명의 청소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다문화 상담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다 보니 그 특수성과 제한성 때문에 접근 가능한 표본 집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 접촉한 응답자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소개받아 대상을 확대해가는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별은 남자가 8명, 여자가 6명이었다. 눈덩이 표집의 특성상 대상자들이 어떤 한 쪽의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편향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표집 시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일본, 중국의 문화적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 14명이 면접 조사에 참여하였다. 각 청소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7. 면접조사 참여 다문화 청소년 인적사항

사례번호	성별	연령 (만)	재학 중 학년	가족구성(국적)	출생지	한국거 주기간
사례1	남	13세	초 6	아버지(한국), 어머니(베트남), 동생(한국)	베트남	11년
사례2	남	18세	중 3	아버지(한국), 어머니(몽골)	몽골	2년
사례3	여	15세	중 1	아버지(한국), 어머니(필리핀), 동생(한국)	한국	10년
사례4	남	16세	중 3	아버지(한국), 어머니(몽골)	몽골	3년
사례5	남	15세	중 1	아버지(몽골), 어머니(몽골), 동생(몽골)	몽골	5년
사례6	여	16세	중 3	아버지(한국인), 어머니(몽골), 언니(몽골)	몽골	7년
사례7	남	14세	중 1	아버지(몽골), 어머니(몽골), 동생(몽골)	몽골	4년
사례8	남	10세	초 3	아버지(한국), 어머니(일본), 형1(한국), 형2(한국), 누나(한국)	한국	10년
사례9	남	12세	초 6	아버지(한국), 어머니(일본), 동생(한국)	한국	12년
사례10	여	16세	중 2	아버지(몽골), 어머니(몽골), 언니1(몽골), 언니2(몽골)	몽골	8년
사례11	여	19세	고 2	아버지(몽골), 어머니(몽골), 동생(몽골)	몽골	11년
사례12	남	16세	중 2	아버지(한국), 어머니(중국), 동생1(한국), 동생2(한국)	중국	3년
사례13	여	18세	고 1	아버지(한국), 어머니(중국)	중국	2년
사례14	여	17세	고 1	아버지(한국), 어머니(중국), 동생(한국)	한국	17년

다문화 청소년 심층면접 질문지는 기존 선행연구 및 현장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표 18과 같이 구성하였다. 우선 청소년의 국적, 출생지, 재학 여부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질문한 후 한국 사회 내 긍정적 경험에 대해 먼저 질문하였다. 다음으로 청소년에게 걱정거리나 고민이 되는 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청소년의 답변에 따라 해당 문제를 구체적으로 탐색한 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소년이 대처하고 있는 방식을 질문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지원 서비스 경험과 다문화 상담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였다. 답변에 따라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구체화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질문을 통해 내용을 분명히 하였다.

표 18. 다문화 청소년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영역	질문 사항
인적사항	나이, 학교 재학여부, 가족구성, 출생지
이주경험	이주해온 시기, 이주 과정
긍정적 경험	한국사회에서 지내면서 좋은 점, 학교에 다니면서 좋은 점
호소문제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의 정도
대처방식	현재 당면한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
서비스 경험	지원서비스를 받아본 경험, 서비스 경험에 대한 평가
서비스 요구	받고 싶은 도움, 상담에 대한 인식

면접은 2011년 5월~6월에 걸쳐 약 한달 반 동안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이 위치한 지역의 학교, 외국인근로자센터, 상담센터나 청소년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청소년 심층면접은 약 50분에서 60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청소년에게 면접의 목적과, 면접 과정, 녹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참여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면접조사는 본 연구자들과 상담전공의 석사학위를 가진 조사원 2명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분석 과정 및 방법은 현장전문가 분석내용과 동일하게 거쳤다. 수집된 면접 자료는 필사된 후 질적 분석 과정인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팀의 합의과정을 거쳐 한국에 오게 된 이유,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경험,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 초기의 경험, 적응기의 특성, 다문화 서비스 경험, 상담에 대한 인식 등 7개 영역을 도출하였다

나.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상담 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적응과정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 내용을 CQR(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각 영역마다 14사례 모두에서 나타나는 것은 일반적(general), 7사례- 13사례 전형적 (typical), 6사례 -3사례 드문(variant), 1-2사례 매우 드문 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Hill 외(2005)가 표집의 대표성 결정과정에서의 분류방식을 따라 다문화 청소년 면접 내용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들의 면접내용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

적응단계별 특징,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한국의 다문화 지원서비스 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다.

1)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 배경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이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이후에 부모님을 따라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이들의 경우 대부분 어린 시절의 일정기간을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이들의 한국에 대한 처음 인상과 경험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에도 한국에 오고 싶었으며(드문), 한국에 입국했을 당시에도 한국의 문화적 시설 등이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던 것으로 보고 하였다(전형적). 한국에서 지내면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게 되어 좋았으며(전형적),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이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속한 학교나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고 진심으로 가르쳐 주는 한국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이와 같이 조사 대상인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과 경험을 보고하였다.

표 19.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한국에 오게 된 이유	1) 부모가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이후에 따라서 입국함	전형적(8)
	2) 국제결혼 : 한국에서 태어남	드문(2)
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경험	1)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좋았다, 신기했다 → 입국 당시 경험	전형적(7)
	2)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다 → 입국 전 경험	드문(6)
	3) 입국 후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	
	(1) 가족과 함께 있어 너무나 좋았다	전형적(7)
	(2) 한국은 살기 편하다	전형적(9)
	(3)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분위기	드문(6)

2)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단계별 특징은 어떠한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처음 한국에 이주한 후의 경험과 이후 적응기의 경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0과 같다.

표 20.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단계별 특징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이주 초기의 특성	1) 엄마와 사이가 나쁘다	드문(5)
	2) 한국말 배우는 것이 힘들다	전형적(7)
	3) 문화차이가 커서 힘들다	드문(5)
	4)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했다	전형적(12)
	5) 부정적 정서	
	(1) 외롭고 우울하다	드문(5)
	(2) 불안하고 불행하다	드문(4)
	6) 행동 반응	
	(1) 부모님께 이야기 한다	매우드문(2)
	(2) 화가 나도 참는다	드문(5)
2. 적응기의 특성	1) 부모님과 세대차이가 많이 난다	전형적(7)
	2) 경제적으로 어렵다	드문(5)
	3)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전형적(12)
	4) 진로선택이 어렵다	전형적(11)
	5) 아직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전형적(8)
	6) 자신감 없고 힘들다	전형적(7)
	7) 긍정적 자원	
	(1) 직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드문(5)
	(2) 가족의 지원이 힘이 된다	전형적(7)
	(3) 친구나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	일반적(14)

가) 이주 초기의 특성

본 연구결과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 학습이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또한 언어나 외모 등으로 인해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또한 본국과의 문화차이(드문), 오래 기간 떨어져 있었던 이유로 인해 엄마와 관계가 불편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드문). 이러한 어려움은 우울과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주 초기에는 주로 어려움을 부모님께 이야기 하거나(매우 드문) 참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이와 같이 이주 초기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탐색하는 시기로 다름으로 인한 불편함과 새로운 것을 익혀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이러한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주 초기의 문제와 특성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적응기의 특성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기에는 이주 초기와는 또 다른 문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문제와 한국내의 문화적 적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이후 나타나는 문제로는 우선 학업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이전에는 배우지 않은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진로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에서의 상급학교로의 진학,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여부 등 한국인도 외국인도 아닌 애매한 상태에서의 진로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또한 적응기를 맞이해도 이들은 입국초기의 따돌림과는 다른 형태로 친구를 사귀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즉,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관계에 있어 적극성을 띠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경제적인 문제(드문), 부모와의 문화차이 보다는 세대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형적). 따라서 이들에게는 여전히 자신감 없고 위축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전형적). 그러나 이 시기에 많은 청소년들이 선생님이나 친구의 지지로(일반적), 또한 가족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 청소년 중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이주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극복하는(드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 자원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3)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 서비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센터와 각종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다문화 서비스에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 다문화 청소년 지원 서비스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서비스 경험	1) 경험한 서비스가 좋았다. 도움이 됐다	전형적(9)
	2)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면 좋겠다	드문(5)
2. 상담에 대한 인식	1)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 도움이 될 것 같다	드문(6)
	2) 상담이 도움이 안 됐다, 상담 받고 싶지 않다	드문(5)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들이 받은 지원서비스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전형적). 특히 같은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끼리 공부하고 체험활동 경험은 한국 적응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들의 욕구와 필요에 맞는 활동이 제공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드문). 즉, 모든 다문화 청소년에게 일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닌 개인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 청소년의 상담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와(드문), 상담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드문)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상담의 경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으며 이는 현재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요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3. 논의 및 시사점

현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으며 다문화 가정,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 내 적응을 위해 제안되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지니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지원은 다문화 청소년 관련 기관뿐 아니라 청소년상담 기관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도리어 많은 상담자와 지도자들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상담매뉴얼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와 지원서비스를 받은 다문화 청소년을 심층면접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은 면접내용은 CQR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요약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 연령 등) 특성에 따른 상담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다문화 청소년은 이주배경에 따라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 또는 국제결혼 자녀 중에도 중도 입국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이들은 이주배경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가 많아 한국말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학

령기에 접어들면 자신은 한국인으로의 정체성을 지니고자 하나 다른 외모나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놀림을 받게 되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이나 한국인일 수 없는 다문화 청소년은 정체감 형성기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와는 달리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의 경우 비교적 장기간 부모와 떨어져 지낸 후 한국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의 경우 부모님의 체류신분이 미등록인 경우가 있었으며 그에 따라 자녀인 다문화 청소년 또한 미등록 신분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법적 지위에 따른 제한된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적법한 체류가 아니라는 굴레는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정서적 측면이나 진로문제에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경우 특히 부모로부터의 돌봄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부모에 대한 거리감과 분노를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은 그들의 이주배경에 따라 환경이 달라지며 이에 따른 문제의 정도와 종류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문제, 중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상담을 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이들의 고민정도가 달라지며 필요한 지원 내용도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 이주 기간에 따른 상담접근이 필요하다. 다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에도 한국생활의 적응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주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고 위축되기 마련이다. 특히 언어가 다르고 외모가 다른 경우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실제로 본 연구결과에도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주 초기에 언어문제로 곤란을 겪었으며 학교에서 놀림과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낸 후 함께 사는 경우에 서로에 대한 기대와 불만으로 가족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와 부적응은 청소년을 불안과 우울하게 하는 등 부정적 정서 반응을 갖게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에서는 이주 초기의 청소년의 외적, 내적 경험이 반영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주 초기의 어려움이 적절한 지원으로 해결되는 경우 청소년의 이후 적응이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나 인터넷 중독,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이주 초기의 불안정한 시기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적응기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정기는 가족, 친구, 선생님의 지원이 큰 힘이 되어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주 초기에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적응기에는 다소 자신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적응기에도 이들에게는 학업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는 진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는 외국인 부모와의 세대 차이와 문화차이를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으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이주 초기에는 적응을 위해 필요한 언어교육과 가족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부모 개입, 지속적인 정서적 지원이 필요로 할 것이며 적응기에는 이들의 학업 및 진로 지도, 사회성 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상담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현재 다문화 청소년 상담은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현장의 상담자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다문화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 등 실제 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 상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이 부족하며 자신의 가정과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을 불편해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의 전문가 역시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준비가 부족하며 인력 또한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위해서는 생활지도 멘토링과 연계지원의 중요성이 확인 되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적 지원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이 가능하여야 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자원으로의 연계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상담의 형태에 있어서도 내담자를 직접 찾아가는 상담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있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특성과 상황에 맞는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지나친 동정과 관심을 주는 경우에는 도리어 이들의 성장과 적응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적절한 관심과 지원으로 청소년에게 정서적인 지지 자원이 되어 주며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은 일반 청소년 상담과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어려움과 다문화라는 상황적 어려움이 함께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또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문화 상담자는 연계역량과 가족 및 부모상담 역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의 특성상 자녀 못지않게 부모 또한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상담자는 부모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부모의 어려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상담자는 내담자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다중역할이 요구된다. 다문화 상담자로서의 충분한 교육과 전문성,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진심어린 관심과 만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즉 다문화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진심어린 마음과 태도, 이들에 대한 정보와 이해,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움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최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현재의 다문화 청소년 지원은 다소 제한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처 간에 지원하는 내용이 유사하고 지원 대상 또한 중복되고 제한되어 있다. 이를테면 이주노동자 가정의 자녀와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은 인력의 다문화 지도자가 많은 수의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지원형태 및 방법 등 다각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담자의 소진을 막고, 다문화 특성에 보다 적합한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본 사전요구조사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이루어졌으며 다문화 현장 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의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요구조사 결과를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담매뉴얼의 내용적인 측면이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정보 수집과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그들

의 이주배경, 이주 후 적응단계 등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즉, 학업, 진로, 생활지도에 관련된 지원과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우울, 자존감 저하 등 정신건강 측면, 자아정체감, 부모교육 등의 발달적 측면, 해당 기관으로의 연계 등 통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청소년의 부모 또한 한국에서의 어려움으로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받는 방법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본격적인 상담지원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첫 번째 단계일 수 있다. 현재 일반적인 청소년 상담은 내담자가 주로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실로 찾아오거나 주변사람들에 의해 의뢰되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상담이 시작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상담의 본격적인 진행 이전에 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단계가 필요하며 이는 성공적인 상담진행을 위해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상담과정, 일반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니고 있는 다문화적 특성이 반영된 상담 지원 모델이 필요하다.

또 하나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바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이다. 상담에서의 가장 유용한 도구는 바로 상담자 자신이기 때문이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있어서도 상담자의 상담에 대한 준비도와 전문성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경우 끊임없이 문화적 민감성을 키워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이중문화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다문화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하며 다문화 관련 지식과 상담기술을 익혀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담자 자신에게 다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상담과정은 상담자와 내담자와의 신뢰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상담자의 내담자에 대한 이해 부족은 내담자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있어 중심이며 모든 지원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는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개발과 양성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며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를 위한 상담매뉴얼 개발의 중요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IV.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1. 상담매뉴얼의 개발 절차 모형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2002)의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응용하여 기획, 구성, 실행 및 평가로 이어지는 상담매뉴얼 개발 과정을 수행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현장전문가,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요구 분석을 실시하며, 구성 단계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도출된 상담매뉴얼 구성요소를 도식화하고 매뉴얼 초안을 개발하였다. 실행 및 평가 단계에서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교육과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를 통해 적절성을 검증하고 수정·보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림 5.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 절차

2. 상담매뉴얼의 개발 과정

가. 기획단계

기획단계에서는 문헌연구와 요구분석을 통해 상담매뉴얼의 방향과 주요 구성원리를 도출하였다. 기획단계에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수행하고,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및 개입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호소문제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요구조사의 과정 및 결과는 앞서 3장에 기술된 바와 같다.

나. 구성단계

선행연구 및 다문화 현장전문가 심층면접, 다문화 청소년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해 낸 상담매뉴얼 구성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요구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청소년상담 현장에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즉, 이들의 지원을 위해 초기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후 상담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본 상담매뉴얼은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의 역할, 다문화 청소년 개입 절차 등을 검토하고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의 주안점을 제안하였다.

1)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의 주안점

첫째, 심리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부모교육, 일상생활관리, 관련 자원 연계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문제에 대한 사전 요구조사 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주배경 및 적응단계 등에 따라 다양한 적응문제에 직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입국 초기에 있는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심리상담과 더불어 한국어교육, 일상생활관리 등이 함께 지원될 때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진다. 또한 내담자의 현재 욕구에 따라 심리상담보다는 청소년이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원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상담자는 구조화된 심리상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 통합지원의 허브(Hub)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에 있어 상담자는 다양한 서비스 지원의 종류와 절차를 의사결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는 초기면접을 통해 청소년의 현재 적응 수준 및 위기 수준을 파악하여 다문화 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어떠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상담자가 직접 수행하는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를 구분한다. 상담자는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내담자가 언제든지 연락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허브(Hub)로 남아 내담자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관계를 유지한다. 또한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모든 단계와 과정에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이 강조된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서는 상담자 개인의 문화적 편견과 가치 인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의 문화적 역량이 요구된다. 문화적으로 유능한 조력 전문가는 자신의 관점을 개인의 치료에 한정하지 않고 전문적, 조직적, 사회적 수준에서도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Sue, & Sue, 2008). 즉 개인적으로 가진 편견이나 선입견에 민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발전된 상담 및 심리학에서 인간의 특성을 어떻게 전제하고 있는지, 단일 문화를 대상으로 하여 설계된 조직의 특성은 무엇인지, 단일민족주의를 오랫동안 고수해온 한국 사회의 특성은 어떠한지 등을 광범위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상담자는 청소년의 이주 배경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자신이 청소년의 문제를 정의하는 방식과, 개입 기술, 관련 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영향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하며, 청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 및 지원에 준비시키는 것을 주요 구성요소이자 지원의 출발점으로 강조한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신뢰로운 관계 및 작업동맹은 가장 기본적인 상담의 원리로서, 보편적인 치료적 조건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매뉴얼에서는 내담자를 상담 및 지원 서비스에 준비시키는 것을 상담과정의 출발점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다문화 청소년 심층면접 결과, 다문화 청소년들은 상담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도움을 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를 만들어가는 일은 이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필수 구성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매뉴얼에서는 ‘준비시키기’를 상담과정의 첫 단계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한 상담자의 태도 및 기술들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모든 단계 및 과정은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본 매뉴얼에 제시된 상담의 단계는 다문화 청소년이 여러 이유로 청소년상담센터에 의뢰된 뒤 연계서비스와 상담적 개입을 통해 변화되는 과정을 가정하고 고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담 단계를 적용함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 및 특성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본 매뉴얼에서의 초기면접은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 및 특성에 따라 1회기에 끝날 수도 있으며, 3회기에 걸쳐 나눠서 진행될 수도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 현재의 심리적 상태,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라 다른 접근이 요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매뉴얼을 활용하는 상담자는 본 매뉴얼의 상담모형에 대하여 내담자의 상황에 맞게 어떤 단계는 생략하거나, 확대적용하여 유연한 태도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위의 원리를 바탕으로 상담자들이 활용 가능한 대표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 지원 모델을 상정하였으며, 통합 지원 모델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이 제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개입에 필요한 절차를 정리하고, 상담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뉴얼을 함께 개발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뉴얼은 다문화청소년의 특성과 상담자의 다문화 상담 준비도를 고려하여 사례 중심의 매뉴얼 형식을 취했다. 요구 조사에서 확인한 바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대표적인 경험들을 추출하여 가상 사례를 구성하고, 이러한 사례에 대한 상담자의 준비도를 고려하여 단계별 접근을 제시하였다.

2) 다문화 청소년 상담 단계 모형

위의 구성 원리를 기반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진행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쉬본(Fishbone) 모형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 단계를 설정하였다. 상담 단계는 준비시키기-초기면접-연계-심리상담-추수지도의 5단계로, 이러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역량과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중심에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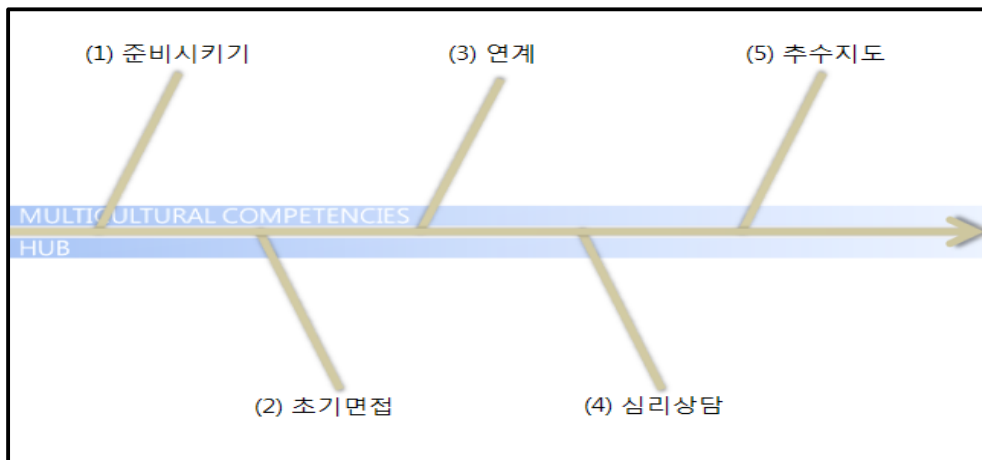


그림 6. 다문화 청소년 상담 단계

3) 상담매뉴얼 구성표

위의 구성모형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상담매뉴얼을 고안하였다.

표 22. 상담매뉴얼 구성안

영역	세부 내용	관련 자료
1. 준비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 청소년의 도움추구행동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안내리플렛(만화)
2. 초기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포 형성 • 이주경험, 학교 및 또래관련 정보, 한국어능력, 가족사항 등 기초 정보 탐색 • 적응영역 및 수준 파악 • 위기영역 파악 및 추가 검사 여부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면접지 • 가족나무활동지 • 적응영역, 위기영역점검표
3.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에게 필요한 연계 서비스 결정 • 연계 자원 관리 • 연계 후 지속적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자원정보시트 • 연계점검일지
4.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단계 심리상담 절차에 따른 심리상담 • 위험요인, 보호요인을 포괄한 문제에 대한 이해 • 개인영역, 가족영역, 학교 및 지역사회 영역의 목표 설정 • 호소문제별 사례 및 개입전략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사례 제시 • 문제영역별 관련 정보 제시
5. 추수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소문제별 사례에 따라 추수지도 방안 제시 • 다문화관련 자원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정보 정리

가) 준비시킴

현장전문가 및 청소년 요구조사 결과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의 자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요구조사에 참여한 다문화 청소년들은 상담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문제 있는 아이들'만 상담을 받는 것이라는 사고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이 속한 문화나 상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담자에게 자신의 상황까지도 이해시켜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사회에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다문화상담에서는 상담에 대한 인식 증진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우이혁, 2011).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상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상담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아는 '준비시킴' 단계를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나) 초기면접

다문화관련 현장전문가들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청소년의 법적 지위, 가족 사항, 이주경험, 한국어 능력 등에 따라 청소년의 적응문제가 달라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매뉴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환경적 특성, 인적사항 등과 관련된 기초 정보에 대한 파악을 중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과의 초기면접은 바람직한 상담관계 형성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내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신뢰 형성이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성을 가진다. 그러므로 초기면접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개입은 상담을 포함한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불신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태도와 개입기술이 필요하다.

본 매뉴얼에서는 ‘유연성’이라는 구성원리에 맞추어 상황에 따른 초기면접의 유연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면접에서 파악해야하는 정보의 영역을 알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면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일반 청소년상담과 달리 다문화 청소년상담에서 추가적으로 탐색되어야하는 정보의 영역은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3. 초기면접 내용 영역

영역	내용
이주경험	출생지, 이주 시기, 이주기간 주양육자, 한국 내 거주기간
학교 및 또래	이주과정에서의 학업중단, 학교생활 적응, 언어/외모/국적 차이 등으로 인한 놀림, 따돌림 등
한국어능력	가장 편한한 언어, 한국어발달수준 등
가족구성	부모님의 국적, 법적 지위, 이주경험이 가족에 준 영향, 문화 차이로 인한 가족 내 역동 등

초기면접 진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초기면접지’를 시트 형태로 제시하였으며, 각 영역을 탐색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들과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상담자 팁으로 제시하였다. 기초정보 탐색에 이어 한국어, 학업·진로, 가정, 또래·학교, 지역사회영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적응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정보탐색 과정에서 나타난 위기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기록하여 추가 검사 필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연계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일반적인 상담보다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원의 연계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었다. 연계란 내담자가 가용한 자원을 찾게 되거나 수혜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정순돌, 2005). 그러므로 본 상담매뉴얼에서도 '연계'를 별도의 구성영역으로 강조하였다. 다문화상담자는 심리상담 외에 내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며, 적절한 연계에 대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내에 어떠한 서비스 기관들이 있고,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인지에 대해 파악하기 위한 시트지 등을 제시하였으며, 연계 이후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또한 매뉴얼 뒤편에 다문화 관련 웹사이트, 기관, 학교 등의 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라) 심리상담

본 상담매뉴얼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심리상담의 절차를 Jongsma, Peterson과 MacInnis(2000)가 제시한 아동 심리치료계획 6단계를 수정하여 제시하였다. Jongsma, Peterson과 MacInnis(2000)가 제시한 절차를 따르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전문가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본 상담매뉴얼의 특성에 맞도록 변형하였다. 그 결과 '문제에 대한 이해-문제의 정의-목표 설정-하위목표 구성 및 개입전략 설계-평가-연계 및 추수지도'로 제시하였다.

1단계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는 초기면접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내담자의 적응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하였다. 특히 내담자의 적응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학교 요인, 문화적 요인, 지역사회 요인 등 다양한 측면의 위험요인뿐만 아니라 초기면접에서 드러난 내담자의 다양한 강점과 자원에 대해서도 보호요인으로 정리하도록 구성하였다.

2단계 문제의 정의에서는 1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 여러 가지 요인을 내담자의 핵심 문제로 정리하는 단계로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의 목록에서 개입에 따른 효과가 가장 큰 문제를 중심으로 핵심 문제를 선택하여 정의한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행동 문제가 어떻게 드러나며, 이러한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의하도록 하였다.

3단계는 목표 설정 단계로서, 2단계에서 정리된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폭넓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 개입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여기에 진술한다. 목표는 개인이 변화해야 할 목표, 가족이 변화해야 할 목표, 학교 내에서 변화되어야 할 목표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여 개인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변화도 함께 추구하였다.

4단계 하위목표 구성 및 개입전략 설계에서는 3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와는 달리, 내담자가 실제로 이를 성취하였는지를 행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각 목표별로 약 2~3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구체적으로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계획하도록 하였다. 또한 하위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세부적인 개입 전략을 포함시켰으며, 다양한 활동 또한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5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개입이 이루어진 후 내담자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단계로서 3단계에서 설정한 목표에 비추어 목적달성척도(Goal-attainment Scaling)을 활용하여 목적달성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목표달성 정도를 4단계로 확인하는데, 각 단계는 (1) '완전히 달성', (2) '대체적으로 달성하였으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음', (3) '부분적으로 달성하였으나, 아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 (4) '아직 성취되지 않음'으로 구분하였다.

6단계는 앞에서 이루어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계 계획 및 추수지도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평가 단계 결과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목표에 대해서는 연계 또는 새로운 개입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 사례별 개입전략 제시

본 상담매뉴얼에서는 청소년 요구조사 및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소년의 다양한 호소문제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호소문제는 '또래의 놀림, 따돌림', '외모 차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학교문화 부적응으로 인한 잠재적 학업중단', '자아정체감 혼란', '부모와의 갈등'으로 다양한 위기요소와 위기결과를 조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 청소년, 이주노동자 가정 청소년을 모두 포괄하며 다양한 국적의 청소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사례별로 초기면접지의 예시와 심리상담 6단계에 맞춘 개입 과정을 구체적으로 하여, 상담자들이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개입전략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다. 실행 및 평가단계

구성단계를 거쳐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우선 지역 청소년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상담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매뉴얼에 대한 평가 및 의견을 수집하였다. 또한 다문화 상담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1인과, 다문화 청소년 현장전문가 1인으로부터 매뉴얼 내용타당도에 대한 평가를 받았다. 프로그램 평가에서 일차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이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뉴얼을 청소년이 직접 평가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매뉴얼의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사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운영하여 상담자 집단의 평가를 받았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뉴얼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향후 수정 및 보완계획을 수립하였다.

1) 상담매뉴얼 시범교육

가) 시범교육 평가의 개요

본 상담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에 대한 시범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수집하였다. 시범교육은 2011년 10월 충남 지역 청소년상담자 대상의 직무 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교육시간은 총 5시간이었다. 교육에는 본 연구팀 중 2인의 연구자가 강사로 참여하였으며 교육내용은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24. 시범교육의 구성

영역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의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다문화 청소년 현황에 대한 개관 다문화 청소년 영역별 호소문제(학업, 진로, 대인관계, 가족 등)와 관련 요인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상담 개입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비시키기-초기면접-연계-심리상담-추수지도의 상담모형 및 구성원리 소개 각 단계별 목적 및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초기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청소년 초기면접의 목적 및 방법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 및 정보 탐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질문 및 반응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 모의 사례를 통한 상담 개입전략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1(국제결혼가정의 초등학생으로 언어문제로 인한 대인관계 어려움 호소) 제시 및 목표 및 개입전략 설계 설명 사례2(이주노동자가정의 중학생으로 한국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잠재적 학업중단 호소)를 보며 개입목표 및 전략 설계 연습

나) 평가도구

본 연구에서 평가도구로 참가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참가자 관점의 프로그램 평가도구는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자원, 교육·훈련 환경, 훈련 담당자 등 내용 중심으로 구성된다(Sanderson, 1995, 이호준, 200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참가자 관점의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평가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는 기관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기관에 보급할 때 그 가능성 및 활용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를 함께 진행하였다. 이러한 평가 요소를 반영하여 참가자 관점 평가의 범주분류와 목적(이성흠, 2005), 프로그램 구성 내용에 대한 평가,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로 전체 평가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범주와 세부 문항을 다음 표 25에서 제시하였다.

표 25. 참가자 관점 평가 도구의 구성

영역	세부 내용
프로그램 목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한가? •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는가? •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 교육 내용이 상담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한가? •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만큼 매력적인가? • 전체 내용 구성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프로그램 항목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현황 •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 다문화상담 개입모형 • 개입 절차
프로그램 현장활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담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매뉴얼을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참여자

시범교육 참여자는 충남지역 청소년상담자 33명이었다. 이들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 상담원 또는 청소년동반자로서 상담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이거나 관련 실무경험을 갖춘 이들이었다.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 24명(72.7%), 남성 9명(27.3%)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39.88세(표준편차 7.82세)로 나타났다.

라) 평가 결과

우선 참여자적 관점의 평가에 따라 상담매뉴얼 내용 및 구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는 표 26과 같다. 평가 결과, 가장 동의도가 높았던 내용은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는 점(94.19점)과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다는 점(93.55점)이었다. 반면,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83.87점)와 '전체 내용 구성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88.39점)라는 두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타났다. 특히 교육 내용이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지 묻는 문항의 동의도가 낮게 나타난 점은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설계가 요구됨을 보여주었다.

표 26. 상담매뉴얼 내용 및 구성 평가 결과

지 표	평균(100점 환산)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가?	90.97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는가?	94.19
교육 내용이 상담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한가?	90.97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93.55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	83.87
전체 내용 구성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	88.39

다음으로 상담매뉴얼 구성영역에 따라 상담자들이 도움을 받은 정도를 평가하였다. 표 27을 보면 다문화 청소년 초기면접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92.26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91.61점)이 가장 동의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은 내용으로 다문화 청소년 사례에 대한 개입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84.52점)과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계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점(87.10점)이 나타났다.

표 27. 구성영역별 평가

지표	평균(100점 환산)
1.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91.61
2. 다문화 청소년의 주요 적응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8.39
3. 다문화 청소년 상담 개입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9.68
4. 다문화 청소년 초기면접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92.26
5.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계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7.10
6. 다문화 청소년 사례에 대한 개입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84.52

마지막으로 상담매뉴얼의 현장활용도에 대한 평가 결과는 표 2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동의도가 가장 높은 내용은 ‘본 상담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4.55점) ‘본 상담매뉴얼을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4.45점) 그리고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4.45점)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상담매뉴얼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청소년상담자들이 인식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상대적으로 동의도가 낮은 문항은 ‘본 상담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4.32점)와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4.35점)로 나타났는데, 시의적절성과 관련하여 현재 다문화 인구 변화를 고려했을 때 개발이 다소 늦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28.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

지표	평균(5점 기준)
1. 본 상담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32점
2. 본 상담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4.55점
3.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35점
4. 본 상담매뉴얼을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45점
5.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45점

다음으로 상담매뉴얼의 내용에 대하여 참여자들이 준 의견을 정리하면 표 2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참여자들은 본 상담매뉴얼이 접근 용이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을 만났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거나 다문화 청소년에게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이 있어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되었다. 반면 청소년의 특성을 국가별로 세분화해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에 대한 내용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등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 또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표 29. 상담매뉴얼에 대한 종합 의견

영역	의견 예시
좋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의 섬세한 부분까지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프로그램화 하였기에 참 좋은 것 같다. •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에서 탈피된 내용이라서 좋았다. • 구체적이다. 접근이 용이하게 편성되어 있다. • 막연하게 생각했던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파악이 가능했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었다. • 사소한 것 이라고 넘기기 쉬운 tip을 잘 짚어 주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 다문화 청소년을 만나게 되었을 때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기초적인 실수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보완해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좀 더 세분화 시켜서 차후에 보완교육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 많은 청소년(국가별)과 접촉해서 대안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사진자료를 더 첨가하면 좋겠다. •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기본이 되는 부모 교육도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 부모교육이나 가족교육 상담측면을 더욱 심화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다루어주었으면 좋겠다.

구성영역별로 살펴보면 현황에 있어서 청소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개론적인 부분은 간단히 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더 제시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청소년의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부분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청소년의 내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상담 개입모형과 관련하여 다문화 상담에서 알아야 할 점과 진행방식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견과 위기에 개입할 수 있게 설계된 구성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더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개입절차 관련하여 구체적인 팁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연계나 사례별 개입전략과 관련하여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고, 사례도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30. 구성영역별 의견

영역	의견 예시
현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청소년의 다양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인구가 어느 정도이고 무엇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지 등의 개론적 부분은 간단히 하고 실제적인 사례내용들을 더 많이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 워크북에서 전체적 맥락이 이해되었고 강의시간에도 다문화 청소년들을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성 및 호소문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 관심이 있는 분야였지만 청소년 쪽에서 접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기회가 주어지고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문화 청소년들의 내면적 힘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나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신 점이 좋았던 것 같다.
다문화상담 개입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개입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점과 진행방식 등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 청소년의 위기에 개입할 수 있게 잘 짜여져 있었다. • 적응에 대한 문제와 함께 부적응도 나타나는 문제 행동에 대한 자료와 상담, 치료까지 다루었으면 좋겠다. • 상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사용할 세부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었다.
개입 절차	<p>1. 준비시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 형성 과정을 확실하게 상담자와 만남을 통해서 가졌으면 한다.
	<p>2. 초기면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초기면접 실시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 (초기 면접시)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구체적이어서 좋았다. 학교 등에서 교사 교육에 많이 도움이 되겠다. • 상담자 고려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한 부분, 대화 방법이나 기본 면접지 양식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좀 더 체계적인 상담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느껴졌다.
	<p>3.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상담기관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고 싶었음.
	<p>4. 심리상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를 좀 나누면서 어떻게 개입하고 진행하면 좋을지 자세히 해주면 좋겠다. • 어떻게 상담을 진행할 것인지 사례의 결과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다. • 시간이 충분하지는 못했고, 사례를 어떤 식으로 개입하고 마무리할지 구체적인 내용이 아쉬웠다. • 상담사례가 일정부분으로 국한된 생각이 들었다. • 사례가 공통적일 것 같음. • 상담 사례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았다.

2)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가) 전문가 내용 타당도 검증 개요

다음으로 본 매뉴얼에 대하여 다문화상담에 대한 연구 경험이 풍부한 상담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다문화상담에 대한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청소년상담자 1인에 의하여 자세한 내용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내용 타당도 검증은 82쪽에 제시된 현장활용도 평가 문항을 활용하여 상담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성, 실용성, 효과성, 현장기여도를 5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형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매뉴얼의 항목별로 세부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2인의 전문가로부터 현장활용도 평가 결과와 각 항목별 세부 의견을 수집하였다.

나)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우선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에 대하여 전문가 2인은 5점 만점 기준 평균 4.8점의 높은 평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상담매뉴얼의 시의적절성, 목적성, 유익성에 대하여 두 전문가 모두 '매우 그렇다(5점)'라고 응답하였으며, 실용성, 현장기여도에 있어서는 평균 4.5점의 동의도를 나타내었다. 즉, 상담매뉴얼 내용타당도 평가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 1인과 현장전문가 1인은 본 상담매뉴얼이 타당하게 개발되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상담매뉴얼 현장활용도에 대한 전문가 2인 평가 결과

지표	평균(5점 기준)
1. 본 상담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2. 본 상담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3.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5점
4. 본 상담매뉴얼을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5.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4.5점

상담매뉴얼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전문가들은 매뉴얼 전체의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매뉴얼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주었으며, 상담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 등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개인특성별로 개입이 보다 유형화되어 상담자가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인 접근을 활용해야 하는지 제시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2. 전문가평가 종합의견

구분	종합의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들어 상담자가 상담에 필요한 목표설정 및 상담 시 유의해야할 것을 숙지하도록 잘 안내해 주고 있으며, 개입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보다 문제해결을 돕는 매뉴얼이 되었던 것 같음.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발달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 보충되었으면 좋겠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원 및 장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으면 좋겠음. • 상담자의 다문화상담능력에 대한 안내 및 스스로 자신의 다문화상담능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점검표가 매뉴얼에 들어가면 좋겠음. • 이 매뉴얼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개인 상담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상담교육 프로그램, 집단상담매뉴얼,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의 운영, 개발, 활용에 대한 안내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면 좋겠음. • 일반 청소년에 대한 상담능력을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이 추가되어야 함. • 다문화청소년의 호소문제가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부모나라를 상담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자료가 첨부되면 좋을 것 같음.
형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이해 및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제별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되어진 매뉴얼인 것 같음. • 호소문제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발달단계별, 개인특성별 등 유형화에 따른 상담전략 세분화 or 모듈화가 필요함. • 사례 예시에서 사례개념화(호소문제-핵심문제-문제의 원인에 대한 가설-목표-개입전략 구상)가 되었으면 좋겠음. •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이주시기와 연령에 따른 구분도 첨가하여 매뉴얼이 조금 더 다양하고 세밀하게 세분화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주노동자의 자녀로 중도입국청소년이 대상인지 결혼이주여성을 통해 한국에서 태어났거나 영, 유아 때 한국에 온 경우인지에 따라 사례에 대한 접근이나 상담자가 바라보는 시각 및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런 분류가 좀 더 세분화되어지면 보기가 더욱 편할 것 같음.

또한 각 구성영역별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황에 있어서는 일부 내용을 보다 정확히 기술하고, 다문화 청소년 상담 실태가 보완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호소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개념 및 상담적 접근의 필요성 등이 보완될 필요성, 개입 모형에 있어서는 통합지원 및 상담자 역할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개입과정과 관련하여 준비시키기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불안 및 경계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팁이 보다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다문화 상담에 대한 홍보가 낙인 효과를 불러오지 않을 수 있는 전략이 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계와 관련하여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나올 필요성, 심리상담에서 특수성과 보편성 간의 균형을 잘 유지시키는 것에 대한 강조가 보완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각 사례별로도 강조점을 두고 진행해야 할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33. 전문가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제시된 보완점

항 목	의 건
우리나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증가이유가 모호하게 표현된 것 같아 보이는데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상담실태 보완되면 좋겠음
호소문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에 대해 구체적인 어려움을 예를 들어 잘 설명해주고 있음 · 입국청소년들보다는 결혼하여 현재 한국에서 양육되어진 아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청소년 개념의 정의를 몇 세부터 몇 세 까지 둘 것인지를 명시하여 아동이 포함되었음을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각 호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핵심적으로 필요한지 등이 보완되면 좋겠음
개입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상담이 보다 내담자중심의 상담임을 보게 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어 상담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며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임 · 다문화청소년 통합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개입과정: 준비시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들은 본국에서 상담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런 문화적인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구조화할 때 상담에 대해 몰라서 오는 두려움, 불안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팁으로 더 보충하면 상담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음 · 다문화상담에 대한 안내 책자가 자칫 다문화청소년에게 낙인을 찍게 하지는 않을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므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한 유의점도 함께 제시하면 좋겠음
개입과정: 초기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들을 초기 면접할 때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점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임. 대부분 상담은 언어로 서로의 감정이 전달되고 이해하는 작업인 만큼 언어소통이 어려운 내담자에 대해 상담자가 준비해야 할 것, 자세들을 명시해주는 것이 필요함 · 접수면접지에서 한국어수준에 따라 상담자가 준비해야 할 통역동참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용어선택을 해야 할지 준비하고 있어야 함. 그래서 한국어수준을 체크하는 난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양육자가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어 주 양육자를 파악하는 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음. 자발적 내담자와 비자발적 내담자에 대한 내용을 구분하거나 상담의뢰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하면 더 좋겠음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보충되면 좋겠음 위기영역점검표에 구체적인 질문내용까지 첨부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개입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에 관한 기관차원의 의사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의무가 소개되면 좋겠음
개입과정: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청소년들이 이중문화로 인한 정체성혼란으로 더욱 고민이 가중될 수도 있지만, 한국 청소년들처럼 똑같은 발달과정을 지나오면서 겪는 똑같은 고민들을 지님. 그래서 다문화 상담 시 청소년들을 한국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비슷한 또래의 문제(학업, 진로 등)로 고민할 수 있음을 알고 특수하게만 바라보지 않아야함을 주의해야하는 팁을 넣으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임 상담단계를 회기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하면 상담자들이 더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례에 비해 초기개입에서 내담자가 느낄 억울한 마음 등에 대한 공감을 해주는 부분을 넣어주어야 함 실제 사례인지 가상의 사례인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사례 제시 시제도 현재형(설명)과 과거형(회상)이 혼재되어 있음. 이것은 모든 사례에 해당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모문제로 인한 위축감을 잘 알게 해준 사례여서 다문화청소년에게 개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이야기치료는 상담의 중요한 접근 중 하나로 팁으로 제공될 내용은 아니라고 봄. 또한 사례2가 이야기치료의 상담과정을 충실히 거친 사례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사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사례보다 인지수준도 높고 언어능력도 있어 보이지만, 앞선 문화에 대한 위축감을 가진 청소년임. 한국사회에서 한국에 적응하게 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주고 있어서 좋음. 역할모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호함. 상담자가 역할모델을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함
사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사례에서 이중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들어 지지해주는 것은 좋은 것 같으나 오히려 청소년이 일본나라, 일본문화에 적응하려기보다는 한국사회에 한국인으로 적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더 크게 보임. 매뉴얼에 제시한 마지막 계획에서 일본유학을 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보다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문화를 선택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며, 오히려 어머니가 자녀의 선택에 대해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이 필요함. 모든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 언어 및 문화를 활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으로 적응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문화 및 언어를 강조할 때 주의해야할 것으로 보임 진로 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져서 정체감 혼란에 대한 개입이 부족해 보임

사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들이 앞으로 겪게 될 가족 내에서의 가치관 갈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생각함. 또한 가족 상담을 담아내고 보여주어 활용하기에 좋을 것으로 보임 · 청소년 개입, 부모 개입, 가족 개입이 혼재되어 있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이 필요함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적절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담아낸 것 같음. · FAQ 내용을 구성한 질문들이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제시하면 좋겠음
연계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진행할 때 여러 기관과 공조를 해야 하는 부분이 놓이는데 다문화와 관련된 타 기관에 대한 정보가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 · 보충했으면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에 다문화특수학급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그 정보를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음 · 다문화청소년들 간 소셜 네트워크 정보는 혹시 없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음

3) 평가 결과 요약 및 논의점

본 상담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매뉴얼 수정 및 보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범교육 평가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타당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교육 평가 및 내용타당도 평가 결과, 상담자들과 전문가들은 본 상담매뉴얼이 전반적으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으며,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상담매뉴얼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상담자들은 높은 동의도를 나타내었으며, 구성영역별로는 현황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초기면접에 대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정도가 높았다. 현장활용도 평가에서는 상담자, 전문가 모두 본 상담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는 점과 본 상담매뉴얼을 다문화 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동의가 높았다. 즉, 시범교육 평가 및 내용타당도 평가에서 나타난 결과는 본 상담매뉴얼이 목적에 맞게 개발되었으며, 그 구성 내용이 타당하고,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시범교육으로 인한 평가 결과, 상담자들은 보다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사례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교육 시간 상 2가지 사례에 대한 개입 전략만 제시된 결과로 여겨지므로, 향후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교육 구성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유형별, 특성별 개입에 대한 내용이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전문가 평가에서도 청소년의 이주배경별 특성에 대한 설명이 보완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 중국, 일본을 문화적 배경으로 한 5가지 청소년 사례의 차별적인 환경적 특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셋째, 평가결과, 상담 사례개념화 및 개입 전략 설계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교육에 참여한 상담자들은 연계나 사례별 개입전략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전문가들은 개입 전략에 대하여 상담모듈식 접근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상담매뉴얼에서 제시된 심리상담의 과정을 모듈식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모듈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예시를 보여줄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넷째, 전문가 평가 결과 상담자의 다문화상담에 대한 준비도를 점검할 수 있는 과정이 추가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이나 사전조사와 일치하며 상담자의 준비도를 교육을 통해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기점검의 과정을 추가하여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상담매뉴얼 수정 시 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준비도를 자기점검하는 과정을 상담매뉴얼 구성요소로 일부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상담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예를 들어, 시범교육 결과 교육 내용이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지 묻는 문항의 동의도가 낮은 것을 감안하여, 본 매뉴얼에 보다 다양한 시각 자료가 포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서 가족상담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가족상담에 관한 내용이 더욱 자세하게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4) 상담매뉴얼 수정

시범교육에서 나온 평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프로그램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두 집단에서 평가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본 연구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나는 상담매뉴얼 내용에 대한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매뉴얼에 따른 운영에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개발단계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으로 반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 상담매뉴얼 내용에 대한 수정 계획

전문가 집단과 교육생 집단 모두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좋은 자료이며 자세히 구성되어다는 장점을 언급하였다. 이와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거나 자세한 안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상담 매뉴얼에 연결시켜본다면 다음 표 34와 같은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우선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관련 지식에 있어 보다 명료하게 내용을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 범위 등에 대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또한 상담자가 다문화 상담에 임할 때 준비도가 어떠한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또한 연계나 초기면접 등에 있어서 상담자의 역할과 같은 상세 지침을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사례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반영하여 각 사례와 사례에 대한 개입전략을 소폭 수정하였다. 그리고 FAQ를 비롯한 부록의 제시 방안에 대해서도 수정을 가하였다.

표 34. 상담매뉴얼 수정 계획

항 목	의 견
다문화 청소년 특성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명시하기 ·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이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 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핵심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보완하기
상담자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상담에 대한 상담자 준비도 체크리스트 추가
개입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청소년 통합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기
개입과정: 준비 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방법을 부각시키기
개입과정: 초기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 구사 수준에 따른 상담자 준비도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중도에 입국한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양육자가 여러 번 바뀔 수도 있어 주 양육자를 파악할 필요 있음 ·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위한 심리검사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보충하기 · 위기영역점검에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을 추가하기
개입과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를 위한 상담자의 역할과 의무 추가
개입과정: 심리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사례에서 전문가 피드백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정
사례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담자가 느낄 억울한 마음 등에 대한 공감을 추가하기 · 사례 제시 시제에 대한 통일성(모든 사례에 해당)

사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 상담전략에 대한 세부적 보완
사례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모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하기. · 역할모델 활용 지침 제시
사례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문화를 선택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함, 동시에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정체감 영역을 안내하고 수용하도록 방향제시해주기. · 진로 문제를 정체감 문제와 연결시켜 둘 다 비중있게 다룰 필요 있음
사례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개입, 부모 개입, 가족 개입이 혼재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이 필요함 · 가족상담 관련 전략 구체화
FAQ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Q 내용을 구성한 질문들이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구체적으로, 우선 다문화 청소년 특성을 파악하는 부분에서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다문화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명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왜 상담적 접근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핵심적으로 필요한지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다. 더불어 상담자의 준비 단계에서는 상담자 스스로 준비도를 체크할 수 있도록 다문화 상담에 대한 상담자 준비도 체크리스트 추가하고, 개입모형에서는 다문화청소년 통합지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 및 상담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개입과정에서 내담자를 준비시키는 단계에서는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경감시키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추가하였다. 또한 초기면접 단계에서는 한국어 구사 수준을 점검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의 이주경험을 탐색함에 있어 본국에서의 주 양육자 기입란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파악을 위해 심리검사의 활용에 관한 기술을 추가하였다. 연계단계에서는 연계를 위한 상담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심리상담 단계는 각 사례 별로 해당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였다.

사례1에서는 내담자가 느낄 억울한 마음 등에 대한 공감을 추가하며, 전반적으로 모든 사례에 대한 시제를 통일하였다. 사례2에서는 상담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상담전략에 대해 세부적으로 보완하였고, 사례3은 역할모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였다. 사례4에서는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문화를 선택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

할 수밖에 없는 정체감 영역을 안내하고 수용하도록 수정하였다. 또한 진로 문제를 정체감 문제와 연결시켜 둘 다 비중 있게 다루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사례5는 청소년 개입, 부모 개입, 가족 개입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팁을 추가하였고, 가족상담 관련 전략을 구체화하였다. 더불어 현장전문가 요구분석을 통해 도출된 FAQ 내용을 구성한 질문들이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나) 상담매뉴얼 운영에 대한 보완

평가 결과 상담매뉴얼 내용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지만 상담매뉴얼을 보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상담매뉴얼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매뉴얼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시범교육 결과, 상담매뉴얼 교육에 있어서 보다 사례 개입과 관련된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시범교육에서는 2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입전략 세우기를 훈련하였으나 교육생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한 사례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 상담매뉴얼 교육에 있어 현재 매뉴얼에 제시된 5가지 사례를 모두 활용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한 개입 전략 훈련을 제공하도록 운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홍보 단계에서 다문화청소년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해야하므로 홍보 과정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알릴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 각 청소년상담센터나 유관 기관의 성격에 맞춘 전략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담매뉴얼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여러 측면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족상담과 관련하여 높은 요구도가 나타났으므로 다문화 가족상담에 관련된 자원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안이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다문화 상담 관련 자료수집 및 후속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담매뉴얼을 교육 및 보급,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을 표 35에서 정리하였다.

표 35. 상담매뉴얼 운영에 대한 보완 계획

항 목	보완 계획
다문화상담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상담 사례 개입과 관련된 훈련 강화
홍보단계의 주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상담 홍보 전략에 있어서 낙인 효과에 대한 주의 포함
연계프로 그램 및 기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사용할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 개인 상담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 상담교육 프로그램, 집단상담 매뉴얼, 심리검사 프로그램 등의 운영, 개발, 활용에 대한 안내 · 부모교육이나 가족교육 상담측면을 더욱 심화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다루도록 안내하기. · 다문화청소년들 간 사회적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하지 · 연계에 관한 기관차원의 의사결정과정과 그 과정에서 상담자의 역할과 의무를 소개하기
자료수집 및 후속 개발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상담 매뉴얼을 운영하면서 관련 자료를 추가 수집하여 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호소문제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발달단계별, 개인특성별 등 유형화에 따른 상담전략 세분화하거나 모듈화는 것이 필요함.

V. 요약 및 논의

1. 요약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한국 내 적응을 돕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상담분야에서도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위기를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과 성장에 도움을 주는 적절한 상담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심층적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매뉴얼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 및 현장전문가와 청소년 대상의 요구조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호소문제, 개입 전략 등 상담매뉴얼 구성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프로그램 개발 절차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 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한 후 내용을 수정·보완 한다.

이에 따라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문화상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문화 청소년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문화 인구의 이주 및 정착과정에 대한 이론과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을 환경적 측면, 발달적 측면, 적응적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다른 한편, 다문화 청소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자에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개발을 위하여 사전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는 현장의 전문가와 지원서비스를 받은 다문화 청소년을 심층면접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의 구성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현장 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의 면접내용은 합의에 의한 질적분석(CQR)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다문화 현장 전문가의 면접내용을 통하여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정도, 상담자의

관점에서 보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실제 다문화 상담 수행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이 분석되었고 다문화 청소년의 면접 내용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 적응단계 별 특징,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한국의 다문화 지원 서비스 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있어 다음과 같은 주안점을 도출 하였다.

첫째, 심리정서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여 학업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부모교육, 일상생활관리, 관련 자원 연계 등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다문화상담자는 다문화 청소년 통합지원의 허브(Hub)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모든 단계와 과정에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을 강조한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 및 지원에 준비시키는 것을 주요 구성요소이자 지원의 출발점으로 강조한다. 다섯째, 모든 단계 및 과정은 다문화 청소년의 상황 및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한다.

위의 구성원리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진행 단계와 각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피쉬본(Fishbone) 모형의 다문화 청소년 상담 모형을 설정하였다. 상담 모형의 단계는 준비시키기-초기면접-연계-심리상담-추수지도의 5단계로, 이러한 상담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상담자의 다문화상담 역량과 허브(Hub)로서의 역할을 중심에 놓았다.

본 상담매뉴얼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담매뉴얼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후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매뉴얼을 확정하였다.

2.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에 부합하며,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상담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다문화 청소년과 상담자의 실제 경험과 이들의 요구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 상담 및 지원에서의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과 매뉴얼 개발 결과의 시사점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시사점

우선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내담자의 특수성에 맞추어 심리상담뿐 아니라 기존 다문화 자원과 연계하는 상담자의 역할을 제안하여 다문화 상담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현재 급변하는 다문화의 시대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상담자들의 다문화 상담에 대한 준비도 제고 및 전문성 강화에 본 연구결과가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문제는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민족주의가 강한 한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로 받아들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해결력을 증진하고,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개입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실질적인 다문화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관련법에서 정의한 대상이외의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다문화 특성에 적합한 상담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이주배경,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적 특성 등 환경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의 청소년, 이주노동자가정의 청소년은 각 가정사, 개인사에 따라 다양한 이주경험을 통해 한국사회에 진입하게 되므로 이러한 이주배경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며 가족적 특성에 있어서도 일반 가정의 청소년들과 다소 다른 환경적 맥락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상담적 접근을 시도함에 있어 다문화 청소년 개인에 심리내적 개입 외에도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을 이해하고,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다문화 상담자 발달에 있어 상담자 스스로의 문화적 민감성 증진,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 다문화 청소년 상담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과 수련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 상담자는 기존의 상담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 청소년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이 적재적소에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상담자의 문화적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문화 상담자의 양성과 함께 다문화 청

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인 상담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생활지도 멘토링과 연계지원 등이 한국 상황에서 다문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량 중의 하나임을 시사한다.

나. 상담매뉴얼 개발의 시사점

첫째, 본 상담매뉴얼은 상담의 목표 설정에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 개인의 변화 뿐 아니라, 환경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이를 위한 통합지원모형을 제안하였다. 전통적으로 다문화 상담에서는 인간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생태학적 관점(ecological view)을 바탕으로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적인 지원이 강조되어 왔다. 선행연구 및 요구조사를 종합한 결과, 다문화 청소년은 주류 문화에서 벗어난 문화적 배경과 더불어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상담매뉴얼은 한국의 다문화 상담자가 구조화된 심리상담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내담자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상담 목표 설정에 있어 가족, 학교, 지역사회를 포함한 환경적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개인의 변화 추구하고 함께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본 상담매뉴얼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장전문가와 다문화 청소년 요구조사를 기반으로 현장성 있는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즉, 상담 현장에서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상담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에서의 활용성과 용이성을 높였다. 상담매뉴얼에 대한 시범교육 결과, 본 상담매뉴얼에서 개발된 다양한 활동지와 관련 질문리스트 및 구체적인 지침 등은 실제 상담자가 다문화 청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상담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으로 개발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상담매뉴얼에서는 청소년의 이주배경 별로 다양한 호소문제를 제안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개입전략을 사례와 함께 제안하였다. 현장전문가 및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이주배경에 따라 다양한 호소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호소문제를 가상 사례로 구성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위험요인, 보호요인 등을 함께 제공하여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높

이고자 하였다. 더불어 호소문제 별로 차별적인 상담 목표와 개입전략을 함께 소개하여 상담자들이 다문화 청소년 개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는 점에서 본 상담매뉴얼의 의의가 있다.

넷째, 상담자 평가를 통해서 상담매뉴얼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상담매뉴얼 수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본 상담매뉴얼이 다문화 상담 현장의 상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로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 상담자 평가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맞는 상담매뉴얼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전문가 내용타당도 검증을 함께 진행하여 상담매뉴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을 거쳤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립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상담매뉴얼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실시하여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3. 한계점 및 후속연구 제안

첫째, 본 연구에서는 요구조사에서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대상이 가지는 특수성과 제한된 조건 때문에 눈덩이 표집을 통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를 다문화 상담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정하다보니 접근 가능한 표본 집단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처음에 접촉한 응답자를 통해 비슷한 사례를 소개받아 대상을 확대해가는 눈덩이 표집을 사용하여 이와같은 편의표집의 특성상 연구결과를 모든 다문화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의도적 표집 방식을 사용하여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 가족의 특성, 농어촌 지역에서 성장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을 둔 다문화상담자 매뉴얼을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인구 내 하위그룹(출신국가)의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장에서의 새터민 청소년의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다른 다문화 집단과의 특성 차이로 인해 본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즉 출신 국가마다 다른 사회경제적 상황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상이한 호소문제가 수반되므로 다문화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적절한 개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하위그룹별 호소문제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 요구조사 결과 청소년들의 이주과정에 따라 호소문제에 있어 변화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으나, 더욱 구체적인 시기별(예; 입국초기 및 이주 3년 후, 이주경

힘이 없는 경우 등)로 차별적인 적응문제에 대한 접근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세분화 된 적응단계에 따른 호소문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 개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가족개입의 제안이 미흡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적응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는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요구에 맞춘 집중적인 가족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문화적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이에 기반한 구체적인 개입기술 제안이 부족하였다. 한국적 다문화 상담역량은 다문화 상담의 보편적 역량과 한국적 다문화상담의 특수성을 동시에 요구하게 된다. 한국의 다문화 상담자가 갖추어야 하는 문화적 역량에 따른 세분화된 상담 기법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본 상담매뉴얼은 시범교육 평가를 거쳤으나, 실제 청소년들에게 상담매뉴얼을 적용해 보지 않아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본 상담매뉴얼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수정, 보완하는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청소년 고위기문제(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비행 등)에 대한 개입 제안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적응문제(언어, 진로, 학업, 가족 갈등 등)에 대한 개입을 집중해서 다루었다. 이에 반해 청소년들이 빈번히 노출되는 고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 제안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고위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을 상담하는 상담자가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치료 프로그램 혹은 아웃리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기정, 이무영, 한재희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체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강진령 (2005). 한국 상담의 비교 문화적 고찰을 통한 상담 활성화 방안 연구. 학습자 중심교과교육연구, 5(1), 23-42.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http://damunwha-edu.or.kr/Front/main/>에서 검색.
-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계획. www.mest.go.kr에서 검색.
-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2011). 중도입국 청소년 현황 및 과제 진단 토론회 자료집. 국회다문화가족정책연구포럼.
- 김경자 (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학교적응.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영, 곽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도희, 김성이, 신호진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3), 53-78.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혜련, 이혜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애순 (2005). 청년기 갈등과 자기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 김정원 (2006). 국내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 자녀 학교교육 실태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6(3), 95-129.
- 김종철 (2009). 다문화 가정 자녀의 행동특성 분석을 통한 교수전략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9(5), 227-283.
- 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자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양육스트레스와 양육효능감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1), 46-60.
- 김창대 (2002).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청소년 집단상담의 운영, 75-108.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춘화 (200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지원 요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기, 강봉균 (2001). 현대 상담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남윤주, 이숙 (2009a). 다문화가족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애착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아개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9), 27-36.
- 남윤주, 이숙 (2009b).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비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3), 357-367.
- 민가영 (2009). 교육 소외 경험에 대한 트랜스내셔널 비교연구: 이주노동자 자녀와 한국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25-252.
- 박아청, 김혜숙, 김창대 (1996). 청소년발달상담. 서울: 청소년대화의광장.
- 박주희, 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연구, 21(2), 129-152.
- 배경의, 이경혜, 김영희, 김수, 김희경, 김지현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행위와 양육효능감. 아동간호학회지, 16(3), 175-183.
- 배소영, 곽금주, 김근영, 정경희, 김효정 (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발달지원자 설문을 통해 본 아동의 언어환경 및 언어발달 실태. 언어치료연구, 18(4), 165-184.
- 배은주 (2007). '차별'과 '동화': 초등학교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갈등. 교육비평, 18, 53-68.
- 배주미, 김동민, 정슬기, 강태훈, 박현진 (2010). 2010년 전국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보건복지부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서홍란, 김기언, 김양호 (2008).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3(3), 121-143.
- 설동훈, 서문희, 이삼식, 김명아 (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성상환, 김광수, 임은미 (2009).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를 위한 상담 매뉴얼 개발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송기범, 장은동 (2010). 사회복지실천에서의 문화적 역량과 측정도구에 관한 고찰. 인

- 문사회과학연구, 29, 40-69.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송선진 (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병환 (2009).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다문화교육 접근방향 탐색. 한국교육논단, 8(2), 155-177.
- 안혜령, 이순형 (2009).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학업성취 비교. 아동학회지, 30(1), 1-10.
- 양미진, 이영희 (2006). 질적 분석을 통한 비자발적 청소년 내담자의 상담지속요인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1), 1-20
-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0).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 조혜영, 이수정 (2009). 미래한국사회 다문화역량강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종장기 정책방안연구 I: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2011). 다문화 청소년 사업 현황. <http://www.mogef.go.kr/>에서 검색.
- 오성배 (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연경 (2008). 다문화 가족 상담을 위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역할.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희목 의원실 (2008). [08 정책리포트 21] 다문화가정 자녀 70%, 고교 안다녀. <http://www.hopetree.or.kr/>에서 검색
- 우이혁 (2011). Mental Health Promotion for Ethnic minorities.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한 정신건강 향상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41-54.
- 윤갑정, 김미정(2010). 다문화시대 유아 교사에게 요구되는 문화적 역량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 30(3), 169-194.
- 윤선오, 박명호, 권장수 (2005). 이주노동자 현황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15(2), 221-260.
- 이성흙 (2005). 학습자 만족도 확인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반응평가.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 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이호준 (2006). 참가자 관점 부모교육 평가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덕희, 신호선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 연구, 17(3), 123-147.
- 전경숙 (2008). 경기도 지역의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6(1), 167-185.
- 전영희 (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개념과 정서·행동문제의 관계 및 관련변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은애 (2008). 다문화가정 어머니-아동 상호작용과 어머니 문화적응차원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돌 (2005). 사례관리실천의 이해: 한국적 경험. 서울: 학지사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정진경, 양계민 (2004).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101-136.
- 정진경, 양계민 (2005). 문화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85-215.
- 정하성, 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하성, 유진이, 이장현 (2007). 다문화 청소년이해론. 과주: 양서원.
- 조경서, 유준호, 오승아 (2007).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유아교육학논총, 11(3), 5-25.
- 조영달, 박윤경 (2010).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교육지원 방안 연구.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 최영인 (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 (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교육사회학연구, 18(2), 105-134.
- 조혜영, 이창호, 권순희, 서덕희, 이은하 (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 학생의 수용성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주은선, 이현정 (2010).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 상담 관련 종사자들의 현장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17-846.
- 지승희 (2001). 회피형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과정 및 변화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생식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상담심리학회 (2011). 상담심리사 윤리강령 및 자격규정, <http://www.krcpa.or.kr/>에서 검색.
- 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청소년상담학시리즈1:청소년상담.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행정안전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계주민 현황 조사결과. 서울: 행정안전부.
- 홍성하(2010). 다문화 상담 이론에서의 방법론적 토대로서 현상학. 철학, 5, 143-168.
- Association for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964). *Standards for Counselor Education in the Preparation of Secondary School Counselors*. Washington, DC: American Personnel and Guidance Association.
- Atkinson, D. R., Morten, G., & Sue, D. W. (1997). *Counseling American Minorities*. New York: McGraw
- Bennett, M. J. (1993). Toward Ethnorelativism: A developmental model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R. M. Paige (Ed.), *Education for the intercultural experience*(2nd ed., 21-71), Yarmouth, Me: Intercultural Press.
- Berry, J. W. (1980). Accumulation as varieties of adaptation. In A. M. Padilla (Ed.), *Accumulation: Theories, models and findings*(pp. 9-25) Boulder, CO: Westview
-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mulation and adaption.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46, 5-34
- Bochner, S. (1981). The social psychology of cultural mediation, In S. Bochner(Ed), *The Mediating Person: Bridges between Cultures*. pp 6-36.

- Cambridge, MA: Schenkman.
- Brach, C., & Fraser, I. (2000). Can cultural competency reduce and health disparities? A review and conceptual model,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57, 181-217.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ssandoh, P. K. (1996). Multicultural Counseling as the "Fourth Force".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126-137.
- Fischer, A. R., Jone, L. M., & Atkinson, K. R. (1998). Reconceptualizing multicultural counseling: Universal healing conditions in a culturally specific contex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6(4), 525-588.
- Heard, D. (1999). A development model of Educating Themselves for Multicultural pedagogy. *Higher Education*, 38(4), 461-487.
- Heywood, A. (2007). *Political ideologies(4th ed.)*.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Hofstede, G. (1996). An American in Paris: The influence of nationality on organization theories, *Organization Studies*, 17, 525-537.
- Jaffe, M. L. (1998). *Adolescence*. New York: Wiley.
- Jongsma, A. E. Jr., Peterson, L. M., & McInnis, W. P. (2000). *The Child Psychotherapy Treatment Planner(2nd ed.)*. (강위영, 송영혜 역. 아동 심리치료 치료계획서). 서울: 시그마프레스.
- Lynch, M. (2000).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 democrac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3), 91-102.
- Patterson, C. H. (2004). Do we need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 67-73.
- Pedersen, P. B. (1994). *A handbook for developing multicultural awareness* (2nd ed.). Alexandria, VA: American Association for Counseling and Development.
- Peterson, A. C., & Taylor, B. (1980). The biological approach to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Y.:John Wiley & Sons, Inc.

- Ponterotto, J. G., Gretchen, D., Utsey, S. O., Riger, B. P., & Austin, R. (2002). A Revision of the Multicultural Counseling awareness Scale.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0*, 153-180.
- Spencer, L. M., & Spencer, S. M. (1993). *Competence at work: Models for superior Performance*(1st ed.). (민병모, 박동건, 박종구, 정재창 역. 핵심역량 모델의 개발과 활용). 서울: PSI컨설팅.
- Sue, D. W., & Sue, D. (2008). *Counseling the culturally diverse : theory and practice* .(하혜숙, 김태호, 김인규, 이호준, 임은미 역. 다문화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Sue, D. W., & Torino, G. C. (2005). Racial-cultural competence: Awareness, knowledge, and skills in Carter(edit.), *Handbook of Racial-cultural Psychology and Counseling: Training and Practice*. NJ: Wiley.
- Sue, D. W., Arredondo, P., & McDavis, R. J. (1992) Multicultural counseling competencies and standard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 477-486.
- Sue, D. W., Bernier, J. E., Durran, A., Feinberg, L., Pedersen, P., Smith, E. J., & Vasquez-Nuttall, E. (1982). Position Paper: Cross-cultural Competencie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0*, 45-52.

부 록

1. 다문화 현장전문가 면접 상세 내용
2. 다문화 청소년 면접 상세 내용
3. 시범교육 평가 설문지

부록 1. 다문화 현장전문가 면접 상세 내용

다문화 현장전문가 인터뷰 사례 분석

1. 다문화 상담자의 전문성 정도는 어떠한가?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상담관련 경력	1) 다문화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다 2) 다문화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	드문 (4) 전형적(7)

1. 1. 다문화 상담 관련 경력

1) 다문화 상담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사례 1) 만 9년, 횡수로 10년입니다. 상담실에서 다문화 청소년을 만난 지 오래 되었어요. 다문화 청소년이 많이 오지는 않지만
- 사례 6) 여기서 근무한지는 1년 4개월 정도 됩니다. 상담을 한지도 그 정도 되고요. 저희가 2001년부터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초기 멤버로 일했고 다문화를 전문으로는 이 센터가 처음이에요.
- 사례 7) 저희는 주로 상담센터로 일하다가 다문화 지원 센터에서 계획하고 착안해서 신규사업을 한 지는 2년 정도 됩니다.

2) 다문화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다

- 사례 2)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상담은 잘 몰라요. 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도 없고요. 그냥 다문화 아이들을 오랫동안 만났죠.
- 사례 4)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건 올해로 4년째예요. 처음에는 한국어 교육과정을 받고 있었는데요.
- 사례 6) 여기 센터에 근무한지는 1년 4개월 됐고요. 그 전에는 아동복지 관련해서 5년 정도 했습니다. 가정복지 출신이고 복지관이나 드림스타트에서 일했어요.

2. 현장에서의 다문화 청소년의 양상은 어떠한가?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에 따른 특성	1)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은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다.	드문 (3)
	2) 중도입국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14)
	(1) 진로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4)
	(2) 불법체류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3)
	(3) 가족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4)
2. 다문화 청소년 연령에 따른 특성	(4) 정서문제가 심각하다	드문 (3)
	3) 새터민 청소년은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드문 (3)
3. 상담기관에 의뢰되는 경로	1)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드문(4)
	2) 중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가지고 있다	드문(3)
4.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유형	1) 다문화 전문기관에서는 잘 의뢰하지 않는다	드문(2)
	2) 다양한 경로로 의뢰된다	드문(3)
	1) 한국 문화와는 다른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드문(4)
	2)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다	전형적(6)
	3) 언어문제, 한국어 배우기 힘들어한다	전형적(7)
	4)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다	드문(3)
	5) 정신건강문제가 있다(불안 우울 등)	전형적(7)
	6) 진로문제를 가지고 있다(제도적, 개인적 요인)	일반적(9)
5.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7) 학업, 학습문제를 가지고 있다	전형적(5)
	8) 불법체류문제를 가지고 있다	드문(2)
6.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실태	1) 이주배경이 달라도 다문화 아이들만의 공통점이 있다	전형적(5)
	2) 국가나 종교에 따라 다문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드문(3)
	1) 다문화 상담실이 아닌, 다른 경로(학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드문 (2)

2.1. 다문화 청소년 이주배경에 따른 특성

1) 국제결혼 가정의 청소년은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다

사례 1) 국제결혼의 경우 이중문화, 이중 언어를 쓰고 있다. 어머니가 이야기 하는 것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 모두가 다 한가정에 있어요 가치관이 다름으로써 오는 갈등이 있어요 여기에 속할 수도 없고 저기에 속할 수도 없고 엄마의 나라나 아버지의 나라냐에 따라 고민하고 갈등해요.

사례 6) 국제결혼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외모가 좀 다르고 언어를 좀 못하지만 자신은 한국인인데 왜 놀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크면서 웬만하면 티도 안나요. 우리 엄마 한국인이라고 속여요.

사례 9)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모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면 혼란스러워 하죠.

2) 중도입국청소년은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1) 진로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4) 진학도 그렇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양한 직업에 관한 이야기도 알려주거나 하는데 또 하나가 센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본국에서 데려온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기 보다는 바로 일을 시키는 겁니다.

사례 8)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자녀들로 따라 온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본국으로 들어가면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기란 쉽지 않죠.

(2) 불법체류 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6) 미등록 중도입국 아이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죠. 왜냐하면 걸리면 추방이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나 공공기관 등에는 절대 아이들을 오ప్ప하지 않습니다.

사례 9) 미등록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굉장히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경계심도 많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보통 그런 문화에 대한 갭이나 어려움이 많은 편이에요.

(3) 가족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4) 중도입국아이들은 아버지와 많이 어색해 해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아이들이 사춘기이기 때문에 낯선 어른들에게 접근하기가 어색하고 그러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래요.

사례 8) 일단 부모들이랑 헤어져서 살았던 아이들이라 정서적인 상처도 크지만 무엇보다도 가족 간에 서로 어색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푸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가족 갈등도 심해지는 거죠.

(4) 정서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5) 생각 없이 보이는 모습, 말도 잘 안하고 항상 전자사전으로 게임을 하는 게임중독. 실제로 다른 센터분들과 이야기해 보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애들이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 게임중독이 되고 정서적으로 피해를 지는 것 같아요.

사례 8) 부모와의 상처뿐만 아니라 한국은 선진국이라 가면 돈도 많이 벌고 멋진 집에서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자신의 집은 곰팡이가 피어있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보니 아이들이 정서적인 충격을 많이 받고 우울해 하고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3) 새터민 청소년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경우가 많다

사례 3) 다문화 아이들 보다 탈북청소년은 주로 만나고 있어요. 그 안에도 다문화 청소년들과 비슷한 맥락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탈북아이들은 더 험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례 1) 경기도 북부 지역에는 새터민 청소년이 많이 있어요. 새터민의 경우 거의 PTSD를 가지고 있어요. 또 같은 민족이고 말이 같지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학교체계나 가치관 이런 것이 매우 달라서 우리나라에 더 적응을 못하는 거 같아요.

사례 9) 새터민 아이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더 세고 당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다른 다문화 아이들 보다 더 자신감 없고 모이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2.2. 다문화 청소년 연령에 따라 특성

1) 초등학생의 경우 친구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례 4) 현재 한국어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중 여러 연령대가 찾아오지만 초등학생이 집중적으로 많고 초등학생이 많다보니 정신을 쏙 빼놓는 거 같아요.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 따돌림 당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얼굴 색이나 한국말을 잘 못하니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요

사례 6) 우리센터는 0세부터 만 12세까지 거의 학령기 아동이어서 저희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의 경우 친구문제를 얘기해요. 한국말을 못하니 친구들이 안 놀아 준다고요.

2) 중학생의 경우 학업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례 1) 우리 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중학생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연령이 언어로 상담이 되는 아이들이 주를 이루잖아요. 현재 다문화 아이들은 초등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아이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으니깐 우리들이 찾아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사례 7) 아이들을 학습지원을 해도 중학교 때 약해지기 때문에 작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한 거예요.

2.3. 상담기관에 의뢰되는 경로

1) 다문화 전문기관에서는 잘 의뢰하지 않는다

사례 1) 다문화 관련기관에서 의뢰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개인 의뢰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은 많은데 그 분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담이라는 인식은 없어요.

2) 다양한 경로로 의뢰 된다

사례 9) 다양한 경로로 상담이 의뢰되고 중학생들이 의뢰가 많이 되고요 부모님이나 학교를 통해서 의뢰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례 3) 1388전화를 통해 의뢰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관에서 연계를 해주기도 합니다. 저

희는 도슨터이니까 시군센터에서 연계해 주기도 하고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권유도 해줍니다. 일반상담이 들어오는 경로와 다르지 않아요.

2.4. 다문화 청소년의 문제 유형

1) 한국 문화와는 다른 부모의 양육방식으로 인한 어려움

사례 1) 아버님을 상담해 보면 어머니들이 알뜰살뜰 아이들이 챙기지 못한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우리랑 정서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엄마가 쫓아 다니면서 챙겨 주는데 이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다보니 그렇게 하는 것 자체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사례 6) 엄마들이 한국문화나 한국말을 잘 모르다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들이 학교에서 가져 오라고 하는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를 테면 물감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이랑 감이랑 챙겨준 거예요.

사례 7) 어떤 애는 엄마가 다문화(외국인)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엄마기 삶에 찌들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2) 따돌림 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1) 아이들이 자꾸 놀리고 따돌림 시킨다는 거죠. 냄새난다부터 시작해서 너네 엄마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잖아 하면서. 놀릴 거리를 찾아냅니다. 아이들이 숙제도 제대로 못해 오니까 선생님에게 혼나고 애들이 그것을 보고 놀리기도 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놀림을 받는 것이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래요.

사례 4) 아이들이 주변에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친구도 만나고. 주로 마음을 털어놓고 있을 친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와서야 학교에서의 일도 털어놓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례 6) 외국인 자녀의 경우 외모가 다른 것 때문에 따돌림 등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자라면서 외모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경우에는 자신이 한국인 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3) 언어문제, 한국말 배우기 힘들어 한다

사례 1) 우리나라 말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보기에 단기간에 말을 빨리 잘 배우는 편인데도 특히 어머니와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날 정도로 잘 배우는데 억양이 다르고 말은 해도 받아쓰기는 잘 못해서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합니다.

사례 2) 중도입국아이들은 경우 한국어 문제예요. 학교진학을 하려해도 한국어가 걸림돌이 됩니다. 사실 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것이 언어의 장벽이기 때문에 질 높은 상담은 어렵다고 봐야 해요.

사례 3) 결국 초등학교 아이들의 문제고 언어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가 의사표현을 잘 못하면 친구가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인터넷 채팅도 많이 하고 핸드폰 요금이 10만원 정도 나랴요 그 전에 알던 친구들하고만 통화를 하거든요.

4) 정체성 문제로 고민한다

사례 3) 외모 상 차이가 나는 아이들은 이미 아이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주변 아이들이 얼마나 차별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동양 아이들 탈북, 조선족, 한족 아이들은 외모가 구분이 안 되는 데도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다문화 아이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 않아도 되나로 고민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다가 '다문화 아이들 남아' 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 6) 동남아나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들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옷이나 음식에 제한이 있어요 어른들이야 그게 가능하지만 아이들은 한국에서 많이 자랐고 자신이 특정종교가 있다고 하면 다른 아이들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정체감의 혼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정체감의 혼란 그런 것들이 있어요.

5)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불안, 우울 등)

사례 4)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사회의 반대세력이 될 수 있다고요. 한 아이가 한국어를 배우 의지고 없고 한국어는 얼마가 가라고 해서 오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많은 시간을 컴퓨터 게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게임에만 몰입하는 아이를 다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 사례 6) 부모의 이중메시지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하죠. 부모들은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종교적인 것을 고수하도록 하면 아이들은 맛있는 거 먹고 싶기 때문에 부모들 몰래 치킨 먹고 그렇거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아이들 중에는 계속된 죄책감으로 힘들어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하고 그래요.
- 사례 8) 수업시간에 야단맞고 수업시간에 화나면 필통 던지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래요.

6) 진로문제를 가지고 있다(제도적, 개인적 요인)

- 사례 2) 아이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얘기하지만 학교 가는 문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이들이 상급학교 진입을 못하는 것은 신분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어서 중학교까지 가는 것을 괜찮지만 고등학교까지 가는 것은 요원한 문제입니다. 경험상으로 중도입국한 아이들이 정규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10명중 2-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 사례 4) 아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고 내가 여기와서 뭘하고 싶은지 꿈조차 꾸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바라는 것은 큰아이들은 진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학교에서 꼭 다루는 것을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기가 노래를 좋아하는지 춤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 사례 8) 매뉴얼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진로에 대한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문화권이 다른 경우에 학교나 향후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넣을 필요가 있어요.

7) 학업, 학습 문제를 가지고 있다

- 사례 3) 학업에 대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학교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 문제 유형 중에서도 짝지어 보기, 보기 이런 용어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시험방식도 다른 경우가 많아서 물어보는데 이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못 물어봐 지식인은 활용하는 경우가 많데요. 그런데 지식인이 터무니없는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 사례 4) 아이들이 본국에서도 부모와 오랜 기간 떨어져 있었고 거기에서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됩니다.

사례 6) 아이들 중에는 학습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구구단이나 한글을 못 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8) 불법체류문제를 가지고 있다

사례 2) 중도입국과 이주노동자의 자녀들은 주로 학업이나 진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이주노동자의 자녀의 경우는 체류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언제나 불안한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사례 4) 불법체류인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이가 도벽이 있어서 정신보건센터로 연결하는데 아이가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곳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에게는 지원할 수 없고 결국 국내에 체류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2.5.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1) 이주배경이 달라도 다문화 아이들만의 공통점이 있다

사례 1) 억울하게 차별당한다는 거, 적응하는데 어려워 한다는 거, 갑자기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 이중문화라는 거 이중국가에 걸쳐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특징이겠죠.

사례 4) 청소년기에 늦게 한국에 들어오면 친구 문제, 진로문제 그런 것들이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사례 6) 다문화 아이들은 배경이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아이들 안에는 어떤 위축이나 억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개방적이지 않고 자신감이 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보면 대부분은 비슷한 다문화 아이들끼리 훨씬 더 친한 편이에요

2) 국가나 종교에 따라 다문화 아이들에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다

사례 3) 나라마다 독특한 특성이 있는 거 같아요. 특히 종교적인 문제가 걸리는 아이들도 다르고 거의 외모가 비슷한 몽골아이들의 경우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몽골은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례 7) 특히 일본 아이들의 경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에는 자신의 나이스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상담은 생각 안하죠. 국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례 9) 아마도 한 반에 다양한 나라의 아이들이 다 같이 있다면 애네들이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예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2.6.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실태

1) 다문화 상담실이 아닌, 다른 경로(학교,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중심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사례 1) 다문화 상담은 학교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해요. 아니면 다문화가족 지원 오산에 있는 그쪽에 가서 부모대상으로 하고 애들이 어려서 부모를 상담할 때도 남편하고 같이 오라고 해요. 그래도 안 오고 힘들어요. 그게.

사례 2) 주로 다문화 사업은 우리 같은 기관이 하고 있는 거죠. 상담 쪽으로는 필요성을 느껴서.

3. 다문화 청소년상담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3.1. 다문화가정 측면에서의 상담의 어려움

1)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경제적인 문제, 학업문제 등이 더 시급)

사례 1)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열악한 가정의 아이들이 많고 또 우리보다 좀 잘 살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나라보다 상담이 더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차적으로 모르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급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여기까지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가정 측면에서의 상담의 어려움	1) 상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경제적인 문제, 학업문제 등이 더 시급)	드문 (4)
	2)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	전형적(8)
	(1) 자신이 외국인임을 숨기고, 자기노출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	드문(2)
	(2) 맞벌이로 상담에 참여 못한다	전형적(7)
2. 상담자의 준비성 부족	1) 다문화 역량을 갖춘 상담자가 없다	드문(4)
	2) 상담자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5)

사례 5) 기본적으로 상담에 잘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거나 집단을 돌리는 경우에도 굉장한 설득작업이 필요합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힘들어도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하죠.

사례 7) 특히 일본 아이들의 경우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야기하는 것을 피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자신의 나이스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상담은 생각 안하죠. 국가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2) 다문화 가정의 부모가 상담을 원하지 않는다

(1) 자신이 외국인임을 숨기고, 자기 노출에 대해 방어적 자세를 취한다

사례 1) 어머니들이 학교에 가도 나타나고 일터에 가서도 느끼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오신지 오래되는 중국 조선족 분들은 티가 얼마 안 나는데 말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죽어도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를 안 하신데요. 그러니 아이들 문제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사례 7) 한국사람들에 대한 불신도 있고 분노도 있고 그런 거예요. 워낙 차별 받고 그런 경험이 많으신 거죠.

(2) 맞벌이로 상담에 참여 못한다

- 사례 1) 부모한테 개인상담은 아니라도 정보를 취하고 부모 교육 같은 거를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안 되는 경우도. 바쁘고 맞벌이를 하여서 못 온다고 하면 못 오는 거고 오셨을 때는 대화가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어상의 문제가 좀 있어요 문화차이로 인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저는 좀 어려워요.
- 사례 6) 부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도 나가서 일하기를 바라죠. 한국에 온 목적이 부모님이 돈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담은커녕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도 힘들고 전혀 협조가 되지 않아요.
- 사례 8)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잖아요. 다 그렇지만 아이들 통보 시간도 부족하고 엄마도 외국에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애들 자체가 애정결핍인 경우가 많아요.
- 사례 4) 심리치료가 상담이 필요한 아이가 분명히 있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중에는 산만해서 정신보건 센터에 연결해 주려고 해도 그리고 부모랑 함께 오라고 하면 부모가 바빠서 못 온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거죠.

3.2. 상담자의 준비성 부족

1) 다문화 역량을 갖춘 상담자가 없다

- 사례 1) 해보니까 좋기는 한데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다문화 상담은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냥 일반 자원봉사자를 훈련을 시켜 학교로 보내는데 학교 세팅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거기에 비해 산출되는 효과는 적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사례 3) 우리나라에서 자란 아이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사람들을 경계하죠.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면 상담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나라에는 애네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상담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 사례 6)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중국계 아이였는데 아이가 목심이 많아서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이집이 어려워 우리가 영어캠프를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공문을 받고 선생님이 다문화 지원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 아이들도 너 다문

화였어? 하면서 수군거리고 아이가 속상해서 집에 와서는 평평 웃었대요 이렇게 선생님이나 우리나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2) 상담자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사례 1) 저는 이론 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담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대한 편견, 이 인종에 대한 편견이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니까요

사례 3) 상담자는 미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 가장 상처받는 대상이 선생님, 상담자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상담자 선생님이 다문화 아이들의 상황을 모르고, 아니면 편견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사례 6) 다문화 상담이라는 사회적 편견에 대한 개인적인 불편함이 있습니다. 타인종, 타민족에 편견이 있다. 한 문화권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다문화에 해서 차별이 있는 건 당연. 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4.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은 무엇인가?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1) 찾아가는 상담이 적절하다	드문 (3)
	2)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담을 한다	드문 (3)
	3) 생활지도 멘토링을 한다	전형적(5)
	4) 내담자에게 필요한 곳으로 연계한다	전형적(8)
	5)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	드문(3)
	6) 적절한 관심/넉치게 주어서는 안됨	전형적(5)
	7)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	전형적(5)
	8)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전형적(5)
	9)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드문(3)
2. 상담자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1)역량개발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1) 상담자로서 관련분야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다문화상담의 이해, 다문화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드문(4) 일반적(9)
	2)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내담자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노력 (2) 상담자로서 다문화에 대한 자기-인식을 점검한다. (편견, 고정관념)	전형적(5) 드문(3)

	(3)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대하자	전형적(8)
	(4)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공 부하자	전형적(6)
3. 다문화상담자 역량	1) 다문화 상담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2)연계역량이 필요하다. 3) 가족과 부모에 대한 개입	드문(4) 전형적(5) 전형적(7)
4. 현재 다문화 상담의 문 제점	1) 다문화상담 전문센터가 부족하다. 2) 부처간에 중복되고 제한된 곳에 집중된 지원 3) 다문화상담자 소진문제가 심각하다	전형적(5) 드문(4) 전형적(5)

4.1. 다문화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상담

1) 찾아가는 상담이 적절하다

사례 1) 제가 생각하는 다문화 상담은 찾아가는 상담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이 필요한 이유는 어머니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상담실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례 6) 저는 무조건 찾아갔어요.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 해요. 또 아빠가 자기를 어디를 데려갈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번 재판으로 아이에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갔어요. 제가 사비를 들여가며 찾아가서 뭔가를 계속 했어요.

2) 대인관계에 초점을 맞춘 상담을 한다

사례 1) 제가 만나는 아이들은 거의 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다 여기에 걸쳐 있어요. 그 관계가 이 아이들이 책임질 수 없는 것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아이인데 몸에서 냄새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따돌리고 그런데도 온지 3년이나 되는 경우에도 너는 다른 나라 아이잖아 하면서 따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4) 학습도 학습이지만 아이들은 관계 문제로 힘들어 합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밥 먹으로 갈 친구 없다는 것에 힘들어 합니다. 주로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례 6) 아이들이 관계가 다 끊어지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게임에 몰입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관계는 필요 없는 거죠. 무슨 어떤 상담이든 관계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3) 생활지도 멘토링을 한다

사례 2) 예컨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멘토링 프로그램이에요. 일반 아이들의 경우에는 달리 멘토 선생님들은 주로 생활지도를 합니다. 가서 밥 먹고, 숙제 봐주고 씻기, 옷 갈아입히기 까지 해 주세요.

사례 4) 그 집중과 함께 일상을 계속 점검합니다. 한국어 배우는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부모님들이 오랜 시간 밖에 계시기 때문에 밤을 새우고 게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멘토들이 일대일로 붙어 생활관리를 해 주어야 해요.

사례 7)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초등학교 대상으로도 해요. 기존의 멘토링은 정서지원이나 학습지원이잖아요 조금 상담이 접목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인 삶, 생활을 케어해 주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4) 내담자에게 필요한 곳으로 연계한다

사례 2)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기는 했지만 상담은 학부 때 들은 것이 다라서 상담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이 없어요. 저는 동네형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기다리는 편이에요. 제 선에서 되지 않는 것은 체계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것으로 연계해줍니다.

사례 3)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연계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상담자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습니다.

사례 4) 상담도 하기는 하지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입학은 시키거나 적응시키는 문제를 합니다.

5) 자신의 상황을 수용하는 것

사례 7) 아이가 일단 우리나라 아빠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불안감, 불만, 분노가 굉장히 많고요. 엄마에 대해서도 창피해 했죠. 제가 상담을 마치면서는 그 아이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 엄마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 숨겨놓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많았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야 그리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것을 좀 수용하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성과였던 거예요.

사례 8) 가족에 대해 힘들텐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상담할 때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에게 있는 상황을 거부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아이들의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필요가 있어요.

6) 적절한 관심/넘치게 주어서는 안됨

사례 3)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친절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아이들한테처럼 해서도 안되고요. 아이들의 문제가 학업이면 일단 들어주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가정문제나 아이들이 하기 힘들어 하는 이야기를 상담자가 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례 4)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받고 학교에서도 받고 동사무소에서도 받다보니 기본적으로 정보력이 있는 아이들은 5-6군데에서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 센터에서 주는 것은 콧방귀도 안 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나눈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례 8) 자원봉사자분들 중에는 아이들이 분쌍하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잘해주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아이들이 거지근성을 갖게 되고 이기적으로 만드게 되는 것 같아요. 자꾸 의지하는 마음만 키워주는 거예요.

7) 개인적 특성과 상황에 맞는 상담

사례 3) 아이들이 학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초등학교만 가도 한글을 다 배우고 가는데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을 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다 해 보았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A에서 구*학습을 시행했거든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단계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수준을 맞추어 하니 아이가 성취감도 느끼는 것 같고.

사례 7)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아이들 연령에 맞추라는 것이 아니에요. 4학년 나이어서 4학년에 들어왔지만 그 아이가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환경의 변화는 지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례 7) 초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버티다가 중학교에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A지역에

는 중학교 나이에도 한국어를 더 배워야 한다면 초등학교에서도 다 받아줘요 학
년제한이 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래서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아이들한테도 맞는
방법이 있는 거죠.

8) 지지체계를 구축하여 자존감을 향상시킨다

사례 2) 작년에 중도입국한 아이인데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너는 적응을 못할거야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어요 그런
데 이곳에서 아이에게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 만나는 사람마다 아이를 응원
해 주고 푸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계속 체크를 하고 신경 쓰고 있다
는 것이 아이에게는 지지체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례 6)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담자는 정서적 지지
를 계속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가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더라도 계
속 잘 지내지? 괜찮지? 이런 문자를 보내서 지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
니 지금은 예뻐, 사랑해요 이런 말도 할 정도예요

사례 7) 우리 아이들 마음에는 한켠에는 찢찢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이 찢찢하
지 못한 마음을 알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게 아이들이 자기 얼마 아버지에게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 집단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 거죠
자존심을 갖게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9) 다양한 활동프로그램의 제공

사례 6) 다문화 아이들과 체험활동 하는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문화 아이들끼리만 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아이들을
함께 데리고 체험활동을 가기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지지체계가 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례 7) 언어가 안 되는 아이들은 움직이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해 주어야 해요 언어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스피드 그림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사례 8)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또한 아이들이 잘
따라 하는 것은 집단활동인 거 같아요 아이들과 어울리고 특히 프로그램이 재미
있으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죠

4.2. 상담자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

1) 역량 개발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

(1) 상담자로서 관련 분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례 1) 제가 받은 교육 중에서 개인상담 접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교육은 다 하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개인상담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없습니다.

사례 4) 인문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한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철학이 있어야 아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이야기 하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례 8) 화를 참지 못한다던가. 이런 경우 상담을 잘 하고 싶어도 역력이 안 되고 잘 하지 못하니까 다른 선생님을 연계해요. 그러나 이런 사례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상담 교육을 받고 싶어요.

(2) 다문화 상담의 이해, 다문화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례 3) 상담하는 분들이 다루던 유형화된 문제가 아닌 것이 많다보니까 어려운 상담을 하는 분들이 이 아이가 다문화적인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체류신분이 합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출발선이 다르고 다문화적인 배경인데 탈북이냐에 따라 또 구분하고 그 다음은 아이한테 들어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공부해서 잘 캐치해야 하는 겁니다.

사례 4) 상담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다문화 아이들의 특성에 대해 한국 상담자들이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문화 상담자도 다문화에 대한 편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상담자가 개인적인 노력으로 끊임없이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례 6) 다문화 상담, 다문화 멘토, 다문화 학습지도,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이해, 다문화 아동이 아닌 일반아동에 대해서 개입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고 시군구 센터 동반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2) 개인적인 노력

(1)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인정해주는 노력

사례 2) 자기성찰도 되겠지만 문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일본은 성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반대이고 그런 부분을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선을 나에게 두지 않고 그 사람들에 두려고 하고 인정해주려고 합니다.

사례 7) 그 아이가 통일교라면 통일교에 대해 알아보고 그 나라의 전통 등을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해요. 아이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이야기하면 선생님 어떻게 알았냐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례 9)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디 출신이든 간에 그들의 문화를 알아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담자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받아주는 곳이 필요합니다.

(2) 상담자로서 다문화에 대한 자기-인식을 점검한다.(편견, 고정관념)

사례 7) 상담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를 계속 되짚으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한 편견, 이 인종에 대한 편견 그런 것들이 없어야 하니까 특히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이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수퍼비전에도 늘 지적하는 일인데 오시는 분들이 조금 촌스러운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저쪽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3) 다문화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버리고 진심으로 대하자

사례 4) 최근에 다문화가 유행하면서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문화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사례 5) 전문가라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어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 그 자료를 보니까 일년만 지나도 아닌 자료가 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필요에 의한 것으로 연구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지.

(4) 아이들을 끊임없이 만나고 끊임없이 공부하자

사례 3) 몇 개의 영화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다문화권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방가방가, 외국영화중에서는 크로싱 등이 있는데 이런 영화를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미 상담자들이 자신의 일만으로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 말고 소설책이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영상을 보고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6) 저는 먼저 공부를 해요. 다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주여성 어머니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나름대로 인터넷 같은 곳에서 찾아봐서 “어머님 이게 뭐예요?” 이야기 하기도 하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대답해 주고 하면 라포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사례 7) 간단하게 만나야죠. 아이들을 만나고 상투적인 대답인거 같지만 아티클 찾아보고 해외에 많이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다문화에 대한 역사가 깊기 때문에 애들을 만나서 경험을 쌓고 실제로 이론을 같이 하면서 워크숍을 열심히 들어야 해요.

4.3. 다문화 상담자의 역량

1) 다문화 상담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례 2) 다문화 상담자는 개인상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게 상담자의 역할도 아닙니다. 또래친구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 집단상담 매뉴얼을 만들어서 준비가 되면 활용가치가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례 4) 저 같은 경우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단순히 일로 생각했다면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상담자로서 아이들을 상담만 한다면 오래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다른 마음 다른 역할도 감수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례 6) 사실 저희는 상담만 하는 게 아니예요. 이주여성들이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로 몽골여성들은 아기들을 젖을 굉장히 오랫동안 먹어요. 그리고 그나라는 밀가루를 먹어야 젖이 잘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미역국을 먹이려고 하고 며느리는 안 먹으려 하고 그러한 갈등도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예요.

2) 연계역량이 필요하다

사례 2) 연계가 가능한 곳의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아이들을 제대로 받을 때까지 그랬는지를 확실히 알아주고 연계해 주는 것입니다

사례 3) 이러한 연계는 지역에 대표적인 영역별로 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서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천안에서도 올 수 있고 그러면 천안 쪽에서 이러한 연계정보가 있어야 해요. 지역이 힘드면 학교나 대안학교 방과 후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병원 이런 쪽 *CYS-Net*을 이용해 가능한 무료검사 등 지역연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 같아요.

사례 9) 다문화 상담자는 열개를 짜는 역할을 해야 해요. 한 기관이 못하는 것이 있으면 컨소시엄 같은 것을 조직해서 필요한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3) 가족과 부모에 대한 개입

사례 2) 멘토나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상대하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집에 가서 학습지도 하고 그러면 혹시 부모가 집에 있으면 이야 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그걸 못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 그런 것에 겁먹지 말고 부모님을 같이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4) 의외로 젊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어도 멀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례 5) 다문화 아이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부모들이 문제라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렸을 때의 고리를 끊어 주어야 하는데 그럴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런데 생각이 없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부모교육이 필요한 거지.

4.4. 현재 다문화 상담의 문제점

1) 다문화상담 전문 센터가 부족하다

사례 2) 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실무자에게 도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앙센터가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3) 일반상담실에서 각 센터의 고유 업무로 인해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을 의뢰하자면 부담을 갖고 저도 그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동반자들이 다문화 상담을 해야 하니 사례를 하나씩 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만 저로서

도 담당자나 이 일을 전담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례 7) 저는 다문화 상담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유학생을 활용하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부분이 진로에 대한 이야기, 한국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하잖아요.

2) 부처 간에 중복되고 제한된 곳에 집중된 지원

사례 4)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받다보니 돈으로 지원받기도 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여기는 여러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자랑하면서도 버기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경우에는 받은 방법이 없거든요. 최근에 다문화 붐이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지원이 오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는 것 같아요.

사례 6) A지역은 다문화 아이들 때문에 원주민이 차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안사지역에는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많고요.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어요. 일례로 콩고 아이가 축구를 잘하니 이곳 저곳에서 후원. 부처 간 비슷한 항목으로 주다보니 받는 아이만 받아요.

3) 다문화상담자 소진문제가 심각하다

사례 2) 아직은 무방비 상태인데요. 일정시간 이상은 절대로 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례 3) 탈북이나 다문화 가정사를 듣다보면 어렵고 위기가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그래도 이러한 상처는 아이들을 통해 치유되는 거 같아요. 잘 지내는 아이들이 가끔 연락하고 만나고 그러면 보람을 느껴요.

사례 6) 다문화 아이들 특히 A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보면 우리한테는 없어진 전염병 같은 것이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같다면 손도 잘 씻고 위생에 신경 써야 해요. 정말 살 빠지고 체력적으로 소진이 많이 되요.

부 록 2. 다문화 청소년 면접 상세 내용

1. 다문화 청소년의 이주배경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한국에 오게 된 이유	1) 부모가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이 후에 따라서 입국함	전형적(8)
	2) 국제결혼 : 한국에서 태어남	드문(2)
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경험	1)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좋았다. 신 기했다. -> 입국 당시 경험	전형적(7)
	2)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다 -> 입국 전 경험	드문(6)
	3) 입국 후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	
	(1) 가족과 함께 있어 너무나 좋았다	전형적(7)
	(2) 한국은 살기 편하다	전형적(9)
	(3)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분위기	드문(6)

1.1. 한국에 오게 된 이유

1) 부모가 먼저 한국에서 일하고, 이후에 따라서 입국함

사례 6) 그냥 부모님 따라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두 살 때 여기 오셨어요 (그럼 울란바 토르 가서 두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얼마 아빠랑 떨어져 산거야?) 2005년도, 9살까지. 친할머니랑 몽골은 그냥, 그냥 같이 살아야 되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서 저를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몽골보다는 여기가 되게 발전되어 있고 그래 갖고 여기 데려오신 것 같아요.

사례 11) 엄마 아빠 돈 벌려 오셔가지고 저도 따라 왔어요. 엄마 아빠 먼저오신 다음에 요. 엄마가 나라 가지고 저랑 동생 데리고 온 거예요.

2) 국제결혼 : 한국에서 태어남

사례 2) 엄마랑 아빠랑 결혼해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구요 동생은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5살 때 필리핀으로 들어갔고 엄마랑 아빠랑 많이 다투셔서 엄마가 동생을 임신한 상태에서 저랑 한국에 들어갔어요.

1.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에 대한 경험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좋았다. 신기했다. → 입국 당시경험

사례 4)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만 살았는데 엄마랑 같이 살게 되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외국으로 가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좋았어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좋았어요.

사례 5) 한강다리, 인천공항도 되게 크고 제일 신기했던 게 사람들 많은 거. 한국말 그 게 제일 신기했어요.

사례 12) 한국에서 더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좋았어요.

2)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다. → 입국 전 경험 : 6사례 (드문)

사례4) 한국 드라마를 볼 때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잘 생긴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너무 오고 싶었어요.

사례5)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은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환경이 좋다는 생각. 몽골은 환경이 안 좋거든요. 몽골은 쓰레기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3) 입국 후 한국에서의 긍정적 경험

(1) 가족과 함께 있어 너무나 좋았다

사례 2)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엄마를 보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엄청 잘해 주었거든요.

사례 11) 부모님과 사이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친구같이 고민 상담도 하고 부모님이 선 배로서 막 조언을 해 주시거든요. 한국에 와서 좋은 것은 이런 부분 같아요.

사례 12) 행복했었어요. 가족끼리 대화하는 거, 밖에 여행 가는 것 모두가 좋았어요.

(2) 한국은 살기 편하다

사례1) 베트남은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데 교통이 안 좋거든요. 오토바이밖에 없어서 다칠까봐 거의 나가서 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국은 골목길도 있고 놀 데가 많아요.

사례6) 서비스라고 해야 하나 그게 발전되어 있는 거 같아요. 뭐 지하철을 탄다던가

안내해 주는 것도 되게 친절하고 인터넷 그 인터넷 쇼핑같은 것도 활발하면 바로바로 되고 네이버 지식에도 엄청나게 많고.

사례 10) 한국은 위험하지 않고 깨끗해서 좋아요. 안전하고요.

(3) 공부하고 가르쳐주는 분위기

사례 4)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국 애들은 밤 12시, 1시까지 하루에 4시간 정도 밖에 잠을 자지 못하는데요. 공부를 되게 진짜 열심히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걸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례 6) 한국은 공정한 게 엄청 많은데요. 그냥 한국 사람들 공부하는 거, 되게 엄청 발전했잖아요. 몽골은 왜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발전하지를 못했을까? 한국아이들은 학교 끝나고도 학원가고, 고시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마다 한국이 이래서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례 11) 일단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게 너무나 좋구요. 그리고 또 사회가 편리하고 발달이 되어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아요.

2. 다문화 청소년의 적응 단계별 특징은 어떠한가?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이주 초기의 특성	1) 엄마와 사이가 나쁘다	드문(5)
	2) 한국말 배우는 것이 힘들다	전형적(7)
	3) 문화차이가 커서 힘들다	드문(5)
	4)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했다	전형적(12)
	5) 부정적 정서	
	(1) 외롭고 우울하다	드문(5)
	(2) 불안하고 불행하다	드문(4)
	6) 행동 반응	
	(1) 부모님께 이야기 한다	매우드문(2)
	(2) 화가 나도 참는다	드문(5)
2. 적응기의 특성	1) 부모님과 세대차이가 많이 난다	전형적(7)
	2) 경제적으로 어렵다	드문(5)
	3) 학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전형적(12)
	4) 진로선택이 어렵다	전형적(11)
	5) 아직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전형적(8)
	6) 자신감 없고 힘들다	전형적(7)
	7) 긍정적 자원	
(1) 직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드문(5)	
(2) 가족의 지원이 힘이 된다	전형적(7)	
(3) 친구나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	일반적(14)	

2.1. 이주 초기의 특성

1) 엄마와 사이가 나쁘다

사례 1) 엄마가 원래 한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서투르셨대요 그런데 엄마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 뭐 의논할 수도 없고 짜증만 나고 그래요.

사례 6) 엄마는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시켰는데 안 한다고 나한테 화내시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제가 딱 하려고 그러면 엄마가 안 한다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내말을 안 들었다. 나를 무시했다” 그러시면서요.

2) 한국말 배우는 것이 힘들다

사례 1) 그때 1, 2 년 정도는 계속 베트남에 있으니까 한국말을 아예 몰랐어요 한국말을 조금 배우고 9살 때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배우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사례 2)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말을 못해가지고 애들이 자꾸 놀리는 거예요 3달 정도는 한국말 배우고 집에 있었어요, 학교에 안다니고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대도 안가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사례 12) 말을 못하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 듣고 꼭 그거를 중국어로 해야 알아듣고 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안 놀아 주고 그러는 거예요.

3) 문화차이가 커서 힘들다

사례 4) 실제로 와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 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국과 몽골이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지금이야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끼지만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례 14) 교수가 향이 독특하잖아요 학교에 한번 건두부를 해가지고 오이 넣고 해서 싸간 적이 있어요 배고파서 싸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냄새만 맡고 인상을 찌푸리니까.

사례 13) 중국은 교복을 안 입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으려니 너무 춥고 그래요 따뜻하게 입을 수도 없고.

4) 놀림이나 따돌림을 당했다

사례 1) 일학년 때는 한국말이 서투러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러다 보니 학교도 가기 싫어지고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례 2) 얼굴이 까매가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저한테 아이들이 찢리핀, 찢리핀 하면서 놀렸어요.

사례 10) 여기에 있으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놀리잖아요 그걸 때 좀 불편했어요 그냥 몽곤 가버려 이런 말도 막 하고요 그런 수업 중에 다문화 가정 이런 말이 나오면요 역사 시간에 몽곤이야기가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막 뒤돌아보고 뭐라고 하고 그래요.

5) 부정적 정서

(1) 외롭고 우울하다

사례 2) 우리 반에 다른 찢리핀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그 아이한테 우리 반 아이가 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무시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아이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사례 4) 그걸 때 그냥 막 침대에서 이불 뒤집어쓰고 웅어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요.

(2) 불안하고 불행하다

사례 11) 엄마랑 손잡고 갈 때 경찰차가 지나가거나 하면 막 엄마가 손 꼭 잡고 가거나 엄마 한국인인척 해야 돼 하면서 엄마 손 꼭 잡고 가슴 졸이며 사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나 불안하고 많이 힘들었어요.

사례 13) 그냥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화를 내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너무나 불행해요.

6) 행동 반응

(1) 부모님께 이야기 한다

사례 2)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애들을 혼내 주었어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그 애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놀리지 말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대충 한 거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요.
 사례 4) 아빠한테도 이르고 엄마한테도 이르고 해요 너무 속상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말씀 드려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 할 사람도 없잖아요.

(2) 화가 나도 참는다

사례 5) 아이들이 몰래 지우개를 넣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좀 힘드니까 제가 한 /주일 동안은 엄마한테 말 안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하면서 학교 안 다닌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고 그래요.
 사례 11) 그냥 막 몸짓으로 이야기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업 내용 다 못 따라가고 정말 학교생활이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그렇고 결석도 되게 많이 했어요 속상하고 화나면 학교에 안가고 그래요.

2.2. 적응기의 특성

1) 부모님과 세대차이가 많이 난다

사례 5) 엄마하고 저하고는 서로의 마음이 잘 안 맞으니까요 제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이러잖아요 계속 시키고. 정말 안 맞아요 서로 이해를 못해요
 사례 14) 아버지랑 제가 좀 안 맞아서, 아버지 하고는 대화가 안 되요. 아버지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좀 많으셔서 생각 같은 것도 너무나 틀리고 아버지는 약간 고지식하셔가지고 저는 좀 개방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2) 경제적으로 어렵다

사례 7) 부모님이 언제나 돈 때문에 신경을 쓰니까, 그리고 싸움의 원인도 돈이고. 다른 아이들은 게임기도 좋은 휴대폰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하나하나가 어렵고 정말 짜증이 나요
 사례 14)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여건상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했었는데 집이 좀 형편이 어려워도 당당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돈이 없다는 것에 불만이 생기고 그래요. 친구랑 놀러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때가 많잖아요.

3) 학업을 따라 가기 어렵다

- 사례 1) 수업시간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는 예쁜 들어 알아듣기는 하겠는데요. 이름을 외워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 거 외우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 사례 6) 학교를 다니면 뭐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한국어를 모르니까 공부를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 사례 12) 중국에서 13년 정도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역사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중국 역사도 많이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기본도 모르고 시험을 치니까 망칠 수도 있어요.

4) 진로선택이 어렵다

- 사례 5) 저는 부모님이 여기 있어도 몽골도 돌아갈까 생각중이에요. 여기서 평생을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몽골에 가서 대학을 나와야 하는지 생각중이에요.
- 사례 11) 아무래도 조금 있으면 졸업이잖아요. 이래가지고 대학교를 어디를 가야 할지 학과를 어디를 정해야 하는지 그런 게 고민이 많이 되요.
- 사례 14) 당장은 걱정이 안 되는데, 걱정보다는 내가 나중에 뭘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좀 약간 의문이 들어요.

5) 아직도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다

- 사례 10) 선생님하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선생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저희를 귀찮아하시는 거 같아요.
- 사례 13) 여전히 어떤 아이들은 갑자기 나한테 욕하고 심하게 장난치고 그래요. 아이들하고 사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 사례 14) 신기하다는 듯이 쳐다보고 막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싫어요. 나는 자기네들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6) 자신감이 없고 힘들다

- 사례 11) 사람들 사이에는 불법체류 이런 것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불법체류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지금까지 제가 지켜온 게 다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례 12) 제가 정말 자신감이 없어가지고요. 무엇을 해도 잘 하지 못하니까요. 늘 기대를 해도 결과나 이런 것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니까요
 사례 14)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속상하고 힘드고 그래요.

7) 긍정적 자원

(1) 직면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

사례 1) 왜 놀리냐고 진짜로 한번 싸우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냥 막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번 싸웠는데 금방 끝났어요.
 사례 10) 제가 기분 나쁠 때는 똑같이 싸우죠. 그러다가 결국 개네득하고 얘기도 안하게 됐어요.
 사례 12) 무조건 다 외우고 수학문제도 많이 풀고 영어 단어도 많이 외우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개네득도 시험점수 올리려고 학원 다니고 하니까 나도 학원 다녀서 시험점수 더 많이 올리려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2) 가족의 지원이 힘이 된다

사례 2) 그래도 일을 하시고 아빠도 가끔 시골에서 돈을 보내시고 설날에는 10만원씩 20만원도 보내주시고 해요.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빠가 있고 해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요. 엄마도 이제 일을 갖게 되셔서 더 많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 5) 지금 좋은 것은 부모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지금은 그게 가장 좋아요. 무슨 일을 해도 힘이 되고요.
 사례 11) 부모님이 그럴 때 마다 이제 그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조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조언이 정말 힘이 돼요.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요.

(3) 친구나 선생님이 도움을 준다

사례 1) 집에서는 근처에 소꿉친구도 있고 하니까 같이 놀면서 한국생활에 익숙해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저곳 막 돌아다니고요.
 사례 2) 선생님이 얘기해 주셔서 급식비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았어요. 학교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 준 지는 몰랐어요. 정말 한국학교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지원이 된다는 것이 나에게서 큰 도움이 되요

사례 8) 평소에 고민이 있거나 하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에요. 친구에게 공부
가 어렵다고도 하고 축구 기술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요 축구
기술을 늘리고 싶은데 잘 안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사례 2) 여기 방과 후 교실이 좋은 게요. 공부도 가르쳐 주지만 준비물 같은 것도 없으면
여기서 빌려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급식비도 안 내도 되고요.

3.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한 한국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서비스는 어떠한가?

영역	범주	응답빈도
1. 다문화 서비스 경험	1) 경험한 서비스가 좋았다. 도움이 됐다	전형적(9)
	2)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면 좋겠다.	드문(5)
2. 상담에 대한 인식	1)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 도 움이 될 것 같다	드문(6)
	2) 상담이 도움이 안 됐다. 상담받고 싶지 않다	드문(5)

3.1. 다문화 서비스 경험

1) 경험한 서비스가 좋았다. 도움이 됐다

사례 1) 나랑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니까 좋은 거 같아요. 특별
히 따돌리는 것도 없고요. 처음에는 가는 길도 잘 모르고 했는데 그곳에서 데려다
주고 하니까 좋아요.

사례 2) 학교가 끝나면 여기에 와서 방과 후 수업을 받아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
어, 미술, 한국어 공부를 해요. 동생도 같이 다녀요. 수업은 6시 반에 끝나고 저녁
밥 먹고 7시 40분에 끝나요. 여기서는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그리고 학교는 학교대
로 급식비 안 내도 되고 문화체험 같은 것도 많이 시켜줘요. 뮤지컬도 보여주고
롯데월드도 가고 나는 너무 좋았어요.

사례 11) 지구촌 학교에서 하는 것도 참여 했었고요.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여기서 하고
그랬어요. 학생끼리 그런 것도 다니고 요리수업 같은 것도 하고 직업체험, 대학
탐방 같은 것도 해요. 너무나 좋은 체험인 것 같아요.

2)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이 제공되면 좋겠다

사례 10) 컴퓨터로 그림 그려보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거 한번 해봤는데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운동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 11) 한국에 있을 때 저 같이 오래된 친구들한테 자기네 나라 말을 배울 수 있는 걸 도와주시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직 온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한국말을 가르쳐야 하지만요.

사례 14) 다문화한테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이런 형식적인 것 보다는요 직접 가서 배우고 듣고 하니깐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더 도움이 되요 다문화 아이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한번 들여보시고 직접 배울 수 있게 해 주세요.

3.2. 상담에 대한 인식

1) 나의 힘든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사례 6)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데 나는 그럴 곳이 없잖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사춘기이잖아요.

사례 11) 상담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진학 같은 거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거든요.

사례 12) 한국에 들어온 지 6개월 정도 OO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동생이 막 나한테 까 붙고 한국어 잘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상담해 주셨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2) 상담이 도움이 안 됐다. 상담 받고 싶지 않다

사례 1) 저는 원래 별로 얘기 안 해요 뭐 예전부터 고민 같은 것이 있어도 이야기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사례 2) 상담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말하면서 고민을 푸는 것 아닌가요? 나는 별로 상담 받고 싶지 않는데요.

사례 13) 학교에서 두 번 받아봤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별로였어요.

부록 3. 시범교육 평가지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 평가지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돕기 위해 청소년상담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교육,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이 설문지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에 대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매뉴얼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응답해주신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 상담매뉴얼을 수정 보완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힘드시더라도 한 문장도 빠뜨리지 말고, 솔직하게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 각 매뉴얼의 내용 및 구성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골라 O표 해주십시오.

지 표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 목적에 부합하는가?	1	2	3	4	5
2.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이 되었는가?	1	2	3	4	5
3. 교육 내용이 상담자 연수과정 운영으로 적절한가?	1	2	3	4	5
4.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필요한 요소로 구성되었는가?	1	2	3	4	5
5. 교육 내용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자들의 관심과 동기를 끌어낼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가?	1	2	3	4	5
6. 전체 내용 구성이 다문화 청소년 상담에 도움이 될 것인가?	1	2	3	4	5

* 구체적인 매뉴얼 항목별로 도움이 되었던 정도를 골라 O표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및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2.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적응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3. 다문화청소년 상담 개입의 원리와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4. 다문화청소년 초기면접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5.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계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6. 다문화청소년 사례에 대한 개입전략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2	3	4	5
의견 :					

* 마지막으로 본 매뉴얼의 현장 활용도에 대하여 아래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영역에 ○ 표 해주십시오.

	전혀 아니다	조금 아니다	보통 이다	조금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매뉴얼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2. 본 매뉴얼이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3.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4. 본 매뉴얼을 다문화청소년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5. 본 매뉴얼이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3	4	5

* 기타 매뉴얼에 대한 의견을 아래 칸에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 매뉴얼의 좋은 점</p>	<p>* 매뉴얼에서 아쉬운 점</p>
--------------------	----------------------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evelopment a Counseling Manual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recent increase in the multicultural population in South Korea calls for more active response policies to the social switchover to an internationalized culture. Although several governmental support services are being provided to multicultural families, these are mostly limited to assisting the adaptation of immigrant women in international marriages, and they neglect other issues, especially youth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Given the prevalence of ethnocentrism in Korean society, children and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ies can be expected to face a profusion of confusion and distress. Thus, there is a growing need for counseling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Because there is a lack of professional counseling services that can assist these young people to become sound members of our society, fundamental research and innovative programs for multicultural youths are in demand.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n adolescent counseling guide to assist in providing in-depth interventions for youths i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children of immigrant workers, and other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The core components of the guide, including the traits and issues of multicultural youths, were explored via qualitative studies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and participating adolescents. The counseling manual was then constructed according to a scientific process, assessed for pertinence and supplemented as needed.

The development of the guide occurred in three stages: project planning, organization, and operation. The project planning stage consisted of discovering primary concepts of multicultural counseling from past

studies and analyzing the status of multicultural youths in Korea via a literature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youths were classified into environmental, developmental, and adaptive aspects, based on theories and on local studies concerning the immigration and settlement of multicultural populations. Also, the abilities required of multicultural youth counselors were described. Next, qualitative research involv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field experts was undertaken and consensual qualitative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the in-depth interviews of 14 adolescents and 9 professionals, with the aim of understanding the experiences and characteristics of multicultural youths and devising appropriate intervention strategies and adjustment tactics.

The organization stage involved the development of the guide, based on the suggestions gathered during the planning stage. First a multicultural youth counseling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the integrated support model. The model included the following steps: preparation, intake interview, referral, counseling, and follow-up, all with the multicultural abilities of the counselors and their role as "hubs" as basic premises. Many example questions and a great deal of detailed advice were provided for the counseling process, especially with regard to intervention, for which exemplary, practical cases were provided.

During the final stage, a participant report of the adolescent counselors and a content validity report of multicultural youth professionals were undertaken. A total of 33 youth counselors joined in the pilot program, providing detailed suggestions on each core component, and generally reporting high scores for both the participant reports and the field usability assessments. These results were examined as a basis for analyzing and revising the guide.

This study applied multiple procedures to develop a counseling manual for multicultural youths. Through the data collected, we assessed the needs of the adolescents and counselors involved, and deduced potential issues for future sessions and support. The manual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c guide for future multicultural youth counseling, though more research is needed for its continued improvement.